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13:00
학부(과, 전공) 학번: 화학과 18학번	성 명	한글: 서도연 한자: 徐道演
담당교수: 김종석		
검인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16살의 나에게 전하는 예(禮)의 편지

16살의 나에게

어느덧 8년이 지나 24살이 된 내가 16살의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어. 투병 생활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적었던 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의 너는 관계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몰라. 그런 너에게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명심해야 할 예(禮)’를 너에게 말해주고자 해.

예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시작하자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인은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다.” -제 7편 술이, 29장-

공자는 인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을 예로 여기셨어. 여기서 인은 내재적인 의미로써 외재적인 의미로써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렇기에 진정으로 예를 행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인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공자는 우리가 인하고자 한다면 인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셨어. 즉, 우리가 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인의 마음을 갖고 예를 행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을 하던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시작은 인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고등학생 2학년이 된 너는 반장의 자리를 맡게 될 거야. 그때의 너는 처음 반장이 되어 많은 부분에서 서툴 거야. 스스로가 너무 부족한 반장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속상 해하는 날도 종종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반 친구들을 향한 너의 인은 무척이나 깊었어. 모든 친구들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반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고, 모든 친구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반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지. 학기가 끝날 때쯤, 너는 여전히 여러 방면에서 많이 부족한 반장 일거야. 하지만, 예를 행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이 반 친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은 확신해도 돼. 반 친구들에게 예를 표하는 방법의 시작은 너가 품는 인의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고등학생 3학년의 너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야. 오해에서 비롯한 작은 불씨가 커져버리고 그로 인해 너는 크게 상처를 입고 친구들 또한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 때로는 너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해로 인해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 그때에 너는 너를 오해하는 친구들을 향한 인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듯이 너는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이해해줬으면 해.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너는 깊은 좌절에 빠져 그들을 향한 인의 마음을 잃을지도 몰라. 지금의 나는 그 친구들을 미워했던 그때의 내 자신이 정말 후회돼. 만일 그때의 내가 여전히 친구들을 향한 인의 마음을 품었더라면 오해는 금방 풀렸을지도 몰라. 친구들이 너를 괴롭힐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예를 갖추어 행동했더라면 그들이 너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지도 몰라. 친구들이 너에게 인의 마음을 품고 미안하다고 했을 때, 너 또한 그들을 인의 마음을 품고 용서했더라면 너도 친구들도 덜 아팠을 거야. 지금의 나는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이 참으로 후회돼.

예에 어긋나는 행동은 기웃거리지도 말자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도 않는다.”-제 12편 안연, 1장-

안연이 인에 대하여 물을 때 공자는 예에 어긋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 나 또한 예에 어긋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발조차 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해. 작은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예에 조금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익숙해지면 점차 예에 어긋나는 정도가 심해지기 쉽거든.

양치기 소년 이야기 기억나? 이야기 속에서 양치기 소년은 심심풀이로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어. 처음에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고 무기를 준비했던 마을 사람들은 반복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인하여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지 않게 돼. 어렸을 때는 마냥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던 이야기가 어느 날 문득 큰 교훈을 깨닫도록 해줬어.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는 거짓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까지 잃게 되었지. 이처럼 우리도 예에 어긋나는 행동에 발을 디디는 것을 시작으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

예를 행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제 12편 안연, 22장-

16살의 너는 오랜 투병생활을 해왔고, 투병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 16살의 너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때의 너는 너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진실된 눈물을 보았고, 너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보았어. 그들이 품은 인의 마음은 너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전심을 다할 수 없거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인의 마음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해.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던 너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너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동기, 선배, 후배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너는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배우게 될 거야. 처음의 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서툴지도 몰라. 그렇기에 그들에게 예를 표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고.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예를 갖추려고 노력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사실 아직도 예를 갖추는 것이 부끄럽고 어려울 때도 있어. 24살의 너도 매일마다 인의 마음을 품고

예를 갖추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인의 마음을 품고 있음이 저절로 느껴지고 너에게 예를 갖추어 행동한다는 것이 저절로 보일 거야. 23살의 너는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만나게 돼. 그리고 언제나 예를 갖춘 그의 행동과 말투는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 걱정이 많은 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사로잡혀 잠 못 이룰지도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이처럼 누군가가 너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그가 예를 갖춘 태도로 나를 대하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를 드러내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알고자 하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학이편 제 16장-

공자는 배움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에 있다고 하셨어. 돌이켜보면 너는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 너가 어떠한 성적을 받던 너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어. 또한 너의 의견을 언제나 존중해주는 친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의 마음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은 인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예의 행동을 갖추기 어려운 마음이라고 생각해.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 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너 자신이 되었으면 해.

공경하는 마음이 예의 근본이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은 인의 근본일 것이다.”-학이편 제 2장-

유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이 인의 근본이라고 하셨어. 24살의 나 또한 유자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야. 너는 앞으로 수많은 삶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삶의 선배는 너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을 것들을 알려 주시고자 할 거야. 자신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배의 배려지. 당장은 선배의 조언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의 조언을 잘 기억해 두고 실천했으면 좋겠어. 너의 삶에 빠가 되고 약이 되는 것들이니 말이야. 그리고 선배에게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를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품도록 해.

유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또한 인의 근본이라고 하셨어. 이전의 나는 내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마음을 쓰지 못 했어. 그래서 부모님께 자주 찾아 뵈지도 못했고 심지어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못 드렸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연락 한번 잘 드리지 않는 그런 무심한 딸이지. 사실 내 부모님은 언제나 젊으실 줄 알았어. 하지만 얼마전에 뵈 부모님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시는 것을 보았고 부모님께서 언제까지 젊지만은 않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때부터 부모님께 작은 효도부터 드리는 것으로 인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일단 시작은 매일 안부 연락 드리기. 사실 매일

연락 드리는 것은 딸로서 해야 할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전의 너는 연락 한번 제대로 드린 적도 없었기에 이제부터라도 실천하고자 마음먹었지.

16살의 너에게 특히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은 부모님을 향해 인의 마음을 지니고 부모님께 효를 행했으면 해. 내 기억으로는 19살이 된 너는 어머니와 충돌이 잦았어. 대입을 준비하면서 진로에 대하여 갈등이 있었거든.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왜 그렇게 부모님께 날을 세우고 있었을까 싶어.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의 근본인데, 나는 인의 근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서 후회가 돼. 만일 이 편지가 16살의 너에게 닿는다면 그때부터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효를 행했으면 해. 따뜻한 말 한마디 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고, 때로는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도 해드리며 말이야. 지금의 나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효를 전할 수 있도록 연락 드리러 가야겠다.

그때의 너도, 지금의 나도 인의 마음으로 예를 표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할게.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월 15:00~16:50
--------------	------------	----------------------

학부(과, 전공) 학번: 의예과 2021311334	성 명	한글: 김건영 한자: 金建瑩
담당교수: 정병섭 검인		

주제: 하나의 진심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예의 모습

〈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 관계들은 맺어지기도 깨어지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자연스럽게 깨지는 관계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관계가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나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하루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며, 같은 취미인 농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나름 가장 오래된 친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그 친구는 나를 조금씩 피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겹치는 친구가 많아 같이 보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그 때마다 생기는 어색한 그 분위기는 서로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나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 친구와의 일은 하나의 고민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친구도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꺼낸 친구에게 나와의 사이에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나와 그 친구가 멀어지게 된 이유는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시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거의 직전 입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수시 합격자 발표와 정시 합격자 발표 사이의 시간대로 돌아간다. 나는 수시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그 친구는 수능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그 친구는 수능 성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선택한 탐구 과목에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 표준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 때 나는 지나가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떨어지면, 그냥 재수하면 되지 뭐. 이번에 잘 봤으니까 다음에도 또 잘 볼 거야.” 글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름 그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고 사기를 올려주려고 장난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었다. 하지만 나는 수능을 제대로 준비해본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수능 시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그 친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 1년 동안의 노력을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친구를 더 불안하게 했을 것이고, 나의 말은 그 불안을 더 크게 증폭시켰을 것이다. 이외에도 그 친구는 내가 그 친구에게 함부로 말을 한 몇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미안하게도 졸업 직전에 한 이야기 말고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 친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조금씩 상처를 받고 있었고, 이는 그 친구도 모르게 마음에 쌓여 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에게 예를 지키는 것을 쉽게 잊게 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들, 그리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 익숙해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친한 사이가 서로 장난을 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당하는 사람이 불쾌해 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관계의 이러한 내면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친해 보이는 모습의 겉면만 보고 ‘친한 사이면 이런 정도의 행동은 해도 되는 구나’, ‘한 6년 정도 봤으면 이 정도 말을 해도 받아주는 구나’라

는 생각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친한 친구가 서로 격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암묵적인 서로의 마음속의 선,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시각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 모습을 따라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친구와의 오랜 친분을 과시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귄 친구와 멀어지고 연락이 끊어지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같은 행동이라도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이는 존댓말과 반말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존댓말을 사용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서로 암묵적인 합의 하에 말을 편하게 하게 된다. 말을 높이지 않는다고, 이를 예를 지키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형식적인 존댓말보다 중요한 서로의 마음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겉으로 말을 높이는 것보다는 예에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자신의 행동에 담는 것이 예이다. 그렇기에 예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를 ‘예의바르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헛갈리는 것 같다. 예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군자가 말하기를 예약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악은 안에서 동하고 예는 밖에서 동하니, 악이 화함을 지극히 하고 예가 순함을 지극히 하여 안이 화하고 밖이 순하면, 백성들이 그 안색을 바라보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그 용모를 바라보고 감히 함부로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덕의 빛남이 안에서 동하여 백성들이 받들어 따르지 않는 이가 없고, 이치가 밖에서 발하여 백성들이 받들어 순종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약의 도를 지극히 하면 들어서 천하에 둠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안에서 동하는 악의 화함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겉으로 동하는 예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가식적인 행동인 것이다.

그 날 이후, 나는 그 친구를 만나 지금까지의 일들을 사과하고, 또 지금까지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사과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큰 상처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어색하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헤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은 약간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몇 달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생긴 양금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한 번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가장 친했던 친구, 가장 오래된 친구를 잃게 된 일은 정말 슬프지만,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인간관계에 대해 한 번 깊게 생각을 해보게 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또, 한 번은 나와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사건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다. 편하게 집에 누워서 짧은 영상들을 볼 수 있고, 점점 더 다양한 내용의 영상들도 등장하면서 원하는 영상을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더 빠져드는 것 같다. 또, 영상 밑에 사람들이 재미있게 댓글을 남긴 것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이다. 특히 요즘에는 헬스에 관심이 생겨 많은 헬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서 영상을 챙겨보고 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자주 보는 헬스 유튜버를 인터넷에 검색해보게 되었고, 한 커뮤니티에서 유튜버를 심하게 비난하는 글을 보게 되었다. 단순히 채널의 더 나은 방향성을 위해 비판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심하다고 여겨지는 글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댓글들도 유튜버를 똑같이 욕을 하는 것이었다. 유튜브에 악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게 돼 더 심각성이 마음에 와닿았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유튜브 플랫폼이 크게 유행하면서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연예인과 일반인 사이의 계층이 새로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달던 것처럼, 유튜버에게도 자연스럽게 악플이 달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꼭 유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팅이 가능한 게임 속에서도, 서로의 생각을 글로 쓰고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속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을 통해 자신을 숨기기도 하지만, 나의 글이 닿는 상대를 숨기는 점에서도 더욱 사람들이 글을 함부로 쓰게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와 이어진 기술의 발달로 오프라인 만남보다 오히려 온라인 만남이 편해지고, 점점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터넷 속에서의 세상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온라인으로 맺은 관계는 실제로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에 필수적인 가치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 했듯이, 하나의 마음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각 상황에 가장 알맞게 발현되는 행동이 예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내가 글을 쓰는 대상이 나를 누군지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누군지 모른다’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서로 잘 모르니 존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야지,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니 막 대해야지’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예’는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잘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덕목이다. 예를 조선 유교 시대에서 전해진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아마 엄격한 신분제도나 과거의 노예 제도 등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예의 표면적인 모습은 변했더라도 그 속의 핵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를 지키라는 말이 선배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는 등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고찰 속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을 정할 수 있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인 예, 그리고 특정 두 사람 사이의 특수적인 예이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등, 대한민국에서의 보편적인 예는 더 나은 사회생활을 위해 정해진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정해진 ‘예’이고, 보통의 도덕 시간의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다. 분명 이러한 ‘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필요하다. 하지만, 조화로운 관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교과서로 배울 수는 없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특수적인 예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위한 진심이라는 공통적인 형태 속에서 자기가 관계를 맺은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표현형이 다르게 결정된다. 친구, 선배, 후배, 교수님, 선생님, 학생, 아버지, 어머니, 자식, 형제자매, 등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한다. 이 관계들을 맺으며, 그 속에서 가장 올바른 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 / 15:00 - 16:50
국어국문 학부(과, 전공) 학번: 2021311043	성명	한글: 오채원 한자: 吳彩媛
담당교수: 이 천 승		검인

주제: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상례, 남겨진 자들과 고인을 이다.

마음껏 슬퍼하기. 욕불아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마음껏 슬퍼하기. 그것이 내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이별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건네어 주고 싶은 말이다. 사실 죽음은 단지 자각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우리 도처에 깔려 있다. 우리는 날이 지날수록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날 적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삶이란 일직선상을 따라 걷고 있음에도 그것이 두렵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한다. 삶과 죽음은 결국 이어져 있는 것이기에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죽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꾸기 위한 첫 걸음을 뚫 수 있다. 죽음은 죽을 홀로 서지 못하기에 삶이 빛나면 죽음 또한 의미 있는 것이 되며, 남겨진 자들은 고인의 찬란한 생애를 예로서 대하여 그의 죽음까지 빛낼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려야 한다. 예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과 형식을 충칭하는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에서조차 사회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다소 무리하게 들릴 수 있다. 예의 없는 엄격한 예의 추구로써 그의 정신을 옴에 굳건히 새길 수는 있겠지만, 슬퍼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상에서의 예의 추구는 오히려 고인과 남겨진 자들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고인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고인에게 예를 다하는 번잡스러운 과정을 구태여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례는 결국 양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우리 남겨진 자들은 고인을 예로 대함으로써 그가 살아온 인생을 공경해야 한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 그렇기에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아쉽지 않을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생에 있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진심의

로 경의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열아홉에 피부로 얻은 경험이다. 처음으로 내게 닿은 죽음의 묵소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랗고 무거웠다. 죽음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그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만, 나는 알아차릴 수 없었으며 그랬기에 더더욱 충격은 크게 다가왔다. 처음 내가 목격한 죽음은 당시 어렸던 나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경험이었으므로 내가 품고 있는 슬픔이 너무 커, 상에서의 격식과 예외가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뼈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입고 있는 검은 옷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고 모든 색채를 잡아먹음으로써 탄생한 거무죽죽한 색채, 그것이 입을 떡 벌리고 곧 나마져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정말 다 소용이 있는 것들일까. 불편한 상복을 벗어 던지고 싶었고, 애도하러 멀리까지 찾아와주신 조문객분들께 인사 드리는 것도 싫었고, 향말 올려 주실 때마다 절을 해야 하는 것도 싫었다. 격식을 차리기 위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만스러웠다. 예의를 차린다고 해서 아버지께 닿을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에 모든 과정이 번잡스럽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한 채, 다 죽은 눈으로 빈소를 지키던 나에게 어머니께서 한 가지 제안을 얻어 주셨다. "채원아,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 물리는 게 어떨겠니?" 아버지께서는 내 글을 무척 좋아하셨다. 내가 열여덟 살, 학교 문학상에서 운운으로 최우수상을 땀을 때 아버지께서는 당사자인 나보다도 훨씬 더 크게 기뻐하시며 나를 '오 작가'라고 불러 주시고는 하셨다. 어머니께서는 아아, 어린 작가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 주셨던 나와 /호 팬, 아버지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던 내 글로써 당신을 잘 보내드리고자 하는 뜻이셨을 터. 평소에도 편지를 쓸 때면 습사리 문을 떼기가 힘들었는데, 눈물로 눈이 뽕뽕 북어서, 이런저런 슬픔들이 하염없이 밀려오는 순간에 펜을 쥐려니 첫 글자를 고르는 일조차 버거웠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절없는 생각이지만, 당시에는 달지 못하는 편지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원하신 것이기에, 또 지금 서툰 말씨라 해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후회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한 자 한 자를 써내려갔다. 편지를 쥐고서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불룩한 배를 가지셨던 아버지, 당신을 뵈자마자 나는 손을 당신의 배 위에 얹었다. 역시나 뽕뽕한 배에 이윽고 모를 감정이 휘몰아치며 정말로 여기 계시구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꺾꺾 놀라담은 마음들을 잃어갔다. 격식을 갖춘 말투도 아니었고, 우리 복녀 사이에 자주 오갔던 실없는 농담들이 어떠한 여과도 거치지 않고 툭툭 던져지는, 그야말로 정통적인 예외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애도였다. 그러나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장난스러운 말투와 뒤섞여 있었음에도 결국 이 편지는 나와 아버지 간의 예와도

같았다. 편지를 전해드리고 나서 뵈 아버지 얼굴은 어쩐지 이전보다 더욱 평온해 보였다. 한 일 내가 그날 편지를 읽지 못했더라면 나는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몇 번이고 그대를 후회했을 것이다. 마지막 인사를 온 마음 다해 전함으로써 내 나름대로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감사, 죄송스러움 그리고 당신의 생애를 향한 공경을 표현하여 당신과의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내가 편지를 통해 아버지께 대한 존경을 표했듯, 아버지의 친구분들께서도 그분들만의 방식으로 예를 실천하셨다. 그 방식이 조금 특이했기에 당시 내에게는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친구분들께서는 당신들끼리 어깨동무를 하시며 쉼 지난 옛날 가요를 부르셨다. 어깨를 양옆으로 흔들며 가시면서까지 흥겹게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 내뱉었는지 상이 절난 후, 어떤 아저씨께서 조용히 내 옆으로 와 일러 주셨다. 그 노래는 사실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노래였으며, 아버지께서는 술에 취해 흥겨운 기분을 항상 그 노래로 풀어내고는 하셨다는 아저씨의 말씀을 듣자, 이전의 내 오해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함께 부르셨으셔서 그분들 나름대로 소중한 친구에게 예를 다해 인사하신 것이었는데,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내가 부끄러웠다. 본어에는 "예는 호화롭기보다는 겸손한 것이 낫고, 장례는 형식에 매이지기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라는 구절이 있다. 모든 예의 추구에는 형식과 내용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인 인간의 사랑과 슬픔, 그리고 망자를 상대로 한 마지막 인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 구절은 나에게 와닿았다. 물론 이를 올바른 형식으로 알아내는 과정 또한 중요하겠으나, 그럼에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망자를 애도하는 우리 안의 마음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나도 형식에 얽매이지보다 각자가 역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아버지께 대한 추억을 나누며 당신과의 관계를 이룬 것이다.

슬픔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식이 각자에게 다르게 존재하듯, 고인을 떠나 보내는 과정에서의 예인 상례는 시대에 따라서도 그 모습을 달리한다. <한국사상(사학)> : 한국의 전통 상례와 현대 상례의 절차 비교 연구에 의하면, 우리 전통의 상례문화는 유교적 방식에 따라 임종에서 탁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치러지며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예식이었다고 한다. 그에 반해 현대의 상례는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던 전통의 문화와 달리,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 아래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지라도 고인과 의 관계에서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예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현대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예로써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과도 관계를 이어나가는 전통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본디 상례가 지니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내가 경험했던 상례 절차에서도 상조회사의 지나친 요구가 많았으며 모든 과정이 결국 돈으로 귀결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더불어 현대에는 체면인식으로 인해 복조금 지출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정도까지 과해지는 경향 또한 있다. 비용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부담된 상례는, 고인에게 예를 다하고자 하는 본래의 마음을 퇴색시키기 때문에 더이상 '상례'라고 표현할 수 없다. 허례허식을 통해 과도한 지출을 하기보다, 진정으로 예를 다함으로써 고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전통의 소중한 마음을 잘 돌이키는 자세가 요구된다. 상례문화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 사회에서 고인의 죽음을 의미있게 기리고자 추구한 상례의 정신을 다시금 성찰해 보고, 현대 사회에서 상주에 대한 위로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현함에 있어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논어	요일/시간: 월요일 11시~13시
--------------	-----------	---------------------------

통계학과(과, 전공) 학번: 2021313835	성 명	한글: 김수인 한자: 金秀仁	
담당교수: 성 시 훈		검인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한 번에 바뀔 필요는 없다

(이 서식에 따라 3~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줄간격160, 글꼴 바탕, 크기11포인트 유지, 5~7천자)

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친구의 수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이며, 가게에서 간단한 주문을 할 때도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대본을 외우듯이 해야 한다. 미용실에 가기도 쉽지 않아 항상 머리카락은 길게 기른 채이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집에 틀어박혀 공부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칭찬을 들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집순이라고 불리던 나는 집안에서 ‘특이한’ 대학생이 되어버렸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조별과제가 없는 수업을 골라 듣고, 친목 모임은 최대한 피하는 등 계속 문제를 회피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술자리에 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일단 부딪쳐보면 어떻게든 된다.’고 말한다. 나도 이런 내가 싫었기에, 최근에는 동아리와 과 단체에도 가입해보았다. 그러나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었다. 나는 술도 좋아하지 않고 시끄러운 술자리 문화도 좋아하지 않았기에 특유의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회식 술자리에서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 있다가 통금을 핑계로 중간에 빠져나온 적도 있다.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엄청나게 울어댔다. 대인 관계가 어려워도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나는 주변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라 문제다. 단체 구성원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지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혀왔다. 아무튼 회식 날 이후로 자기 혐오감이 너무 심해졌고, 불현듯 그날의 생각이 들면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지경까지 이르렀다.

한편 올해 전공진입을 하게 되면서 모르는 동기들과 전공 스터디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스터디 당일엔 요일을 바꾼다거나,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습을 안 비춘다거나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문제는 약속을 파기한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고, 다른 팀원이 당사자가 오늘 참여하지 못한다고 따로 전해준 것이다. 좋지 못한 정신상태 때문인지 나를 빼고 만든 단체 대화방이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대체 어떻게 보는 건지, 중학생·고등학생 시절에도 안 당해본 따를 대학교에 와서 당하는 건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전부 피해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야말로 정신병자가 된 기분이 들어 힘들었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에 가족과 친척끼리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다. 한 친척이 과 단체는 팬클럽, 자과캠 축제는 갔느냐, 과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느냐 등의 질문을 퍼부으셨는데, 그동안의 기억들이 오버랩 되면서 나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결국 식당에서, 조부모님까지 계신 그 자리에서 속수무책으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온 가족이 날 쳐다보는 그 싸한 분위기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고, 부모님께 잘 숨겨왔던 내 심정이 다 들통 났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다. 이 날 느꼈던 감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 다 적지 않는다. 저 다음날 아버지께서 날 따로 부르셔서 단 둘이 대화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입을 열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다. ‘네 성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냐?’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의 몇몇 말씀이 뇌리에 맴돌고는 한다. ‘너만 힘드냐. 남들도 다 힘들다.’, ‘고작 공부 좀 하기 싫다고 가족들 앞에서 우는 게 말이 되냐.’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런 말을 듣는 상황의 단편적인 기억이 나를 좀먹는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나는 저 몇 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심란하고 제정신이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게 자꾸 말을 거는 것이 역겹다는 생각마저도 들었다. 부모에게 이런 생각을 품는 나 자신이 더욱 싫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새벽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께 구체적인 심정을 털어놓지 않았다. 열심히 키워놓은 자식이 이런 불온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교내 카운슬링 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했고, 최근에 본격적인 상담은 아니지만 상담 면접을 보게 되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전부 허사가 된 것 같다, 이런 방법을 택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등의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상담사 분께서는 내가 너무 나와 맞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셨다. 난 극단적으로 내향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계단을 확 뛰어넘어버린 것이다.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담을 통해 나와 맞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까지 해주셨다.

그 말을 듣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났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에 안심한 건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 건지는 모르겠다. 나는 계속 남들에게 나를 맞추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내 과거의 선택들은 딱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논어』에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다.’는 뜻이다. 보통 예(禮)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차리는 예의, 공공장소에서 차려야 하는 예의 등의 형식적인 것이 떠오르지만, 예(禮)는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이자 그 기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禮)가 있어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화합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남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주체성까지 버려가면서 억지로 조화를 맞추는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이 내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남들과 나란히 서고 싶어서, 적어도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와 맞지 않는 방법을 밀어붙이고 있었으니 말이다. 저 구절을 알기 전까지는 나와 예(禮)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예(禮)를 지금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정확히는 나에게 맞는 예(禮)를 근거로 삶을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다. 나는 그야말로 예(禮)를 알지 못해 사람답게 서지를 못한 것이다.

한편 예(禮)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규범인 만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용된다. 얼마 전 어머니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어머니께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 ‘내가 이런 인간이 되었다는 게 그냥 어머니께 죄송해서 미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넌 항상 나에게 최고의 딸이었고 네가 무슨 일을 벌이든 앞으로든 최고의 딸일 것이라고 하셨다. 내가 이런 인간이 된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원래 그런 인간이었던 것인데 어떻게 나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가 있을까.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부모 자식 간의 예(禮) 또한, 나의 주체성을 버릴 필요 없이 본연의 내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예(禮)의 의미를 이미 제대로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들고,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고는 한다. 종강을 하고 방학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금은 쉬어보려고 한다. 내 단점을 조금이나마 가려보기 위해 너무 치열하게 살아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나는 시험을 잘 보는 나, 좋은 대학에 간 나, 학점을 잘 받는 나 등의 정체성에 의존하여 내가 보여주기 싫은 나 자신을 모른 채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성적에 관한 강박감·콤플렉스가 심했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내 의도대로 부모님과 주변인들은 항상 나를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라고 칭찬 해주셨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가 칭찬해주는 나는 언제나 공부를 잘하는 나인데, 그럼 만약 내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 나는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게 되었다. 보여주고 싶은 나와 진짜 내가 주객전도된 것이다. 이 얘기를 어머니께 하자 어머니께서는 ‘네가 대학에 못 갔어도 난 너를 변함없이 사랑했을 거다.’라고 하셨다. 굳이 성적을 잘 받지 않아도 나는 나고, 어머니처럼 이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주위에 있다. 그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싶다.

이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다. 나는 형식적인 예(禮)는 비교적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소통의 기반인 예(禮)는 몰라도 한참을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에는 예(禮)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조금이라도 덜 울고 싶다. 진짜 나를 무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다. 또한 부모를 모시는 예(禮)도 갖추고 싶다.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사실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건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말판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병을 앓고 계신다. 그 아픈 몸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열심히 등록금을 벌어드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든 나와 친해져보려 하시는 것도 알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으로 나와 아버지의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를 중재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뒤에서 나와 아버지를 항상 서포트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다. 알면서도 어버이날 전후로 부모님께 민폐만 끼쳐드린 것 같아 그저 죄송할 따름이다. 우울한 마음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된 자신이 열과 성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릴까봐였다. 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랐는지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 마음이 좀 더 진정되고 나면 제대로 효(孝)를 다짐하고 예(禮)를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혹시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예(禮)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예(禮)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며, 거기엔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고 말이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룰 때 그 사회는 더 아름답다. 언젠가 그 아름다운 사회에 나와 나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목 13:00-14:50
--------------	------------	----------------------

정치외교학과	학번: 2021311977	성명	한글: 김희수	한자: 金熙秀
담당교수: 이미림	검인			

주제: 예(禮) - 극기복례(克己復禮)

제사의 시중(侍中)적 의미

요즘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을 찾기가 힘들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사 및 차례를 지내는 가구는 54.7%로, 두 가구 중 한 가구만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과 실리적인 사고방식 때문인 듯하다. 경제적으로 보면 제사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예의 문화로써 제사를 마땅히 치를 것을 강조한다. 이 에세이에서 나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제사의 전통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확장하여 현대 사회에서 제사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현대 사회에 제사가 왜 필요한지를 고민해볼 생각이다.

제사의 전통적 의미

위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 집은 여전히 제사를 지낸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엔 제사가 있었고 부모님을 따라 습관처럼 매해 지내고 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도 아무런 거부감없이 부모님과 함께 제사를 지냈다. 할아버지 기일에 맞춰 어머니의 음식 장만을 돕고, 아버지와 절을 하고, 제사가 끝나면 남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어렸을 때는 맛있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삿날이 마냥 좋기만 했다. 그러나, 내가 머리가 자라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는 제삿날이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 번 제사를 지내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보다 더한 품도 든다는 게 눈으로 보였다. 어머니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나물을 무치시고, 전을 부치시고, 닭과 생선을 찌시고, 밥과 국을 지으셨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셨다. 나는 자연히 이러한 금전적, 노동적 소비가 따르는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조상님께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많은 비용과 힘을 들여 제사를 지내나 싶었다. 나에게 제사는 그저 의미 없는 일회성의 허례허식에 불과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사가 다가오자 나의 이런 회의감은 커졌다. 서울에서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중이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본가에 내려가려면 내 하루를 모두 투자해야 했다. 나는 그것이 제사 때문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도 볼 겸 어머니의 일도 도울 겸이라 생각하며 기차를 타고 나주에 내려갔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그 힘든 준비를 혼자 다 하고 계셨고 매년 소비되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올해도 들어갔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결국, 이러한 소모적인 제사의 의미를 혼자서 이해할 수 없어, 제사를 지내기 직전 아버지께 여쭙어보았다.

- “아빠, 난 제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조상님들이 알아주시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후 세대들이 힘든 걸 조상들이 바라실까?”
- “아빠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제사는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 “왜?”
- “네가 태어난 게 누구 덕분인데?”

나의 물음에 대한 아빠의 대답은 꽤 간단했다. 나를 태어나게 해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라는 것이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제사는 내 생명의 근원인 조상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례였다. 성균논어 수업을 들으며, 나는 이것이 전통 사회에서의 제례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제사를 인간이 하늘과 귀신에게 정성어린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근원과 교류하는 종교적 의례라고 생각했다. 또한, 자기 조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는 모든 신적 존재에게 드리는 의례가 바로 제례라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제사의 목적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며, 제사를 통해 생명의 근원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통 우리 사회에서의 제례의 의미였다. 나는 해당 수업 내용을 들으며 이러한 제사의 전통적 의미가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진정 마음에 와닿진 않았다. 제사를 통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제사의 참된 의미이긴 하지만,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린다는 것이 아직은 어렵게 느껴졌다. 꼭 그래야 할까 의문도 들었다. 그렇게 나만의 제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나의 물음은 해결되지 않은 채 커졌다.

제사의 현대적 의미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제사의 의미는 나의 질문에 대한 일차원적인 답변만을 제공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이해가 되긴 했지만, 내가 그것을 기꺼이 실현할 정도로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진 않았던 것이다. 만약 논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면, 현대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시중(侍中)적 의미와 목적이 필요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봐온 제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사의 시중적 의미를 고찰할 필요를 느꼈다.

우선, 제사를 지냄으로써 가족은 하나가 된다.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고 다같이 인사를 드리는 것은 행위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의례를 통해 가족들은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동질감을 얻는다. 또한, 이러한 의례를 계기로 가족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돈독한 가정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나, 구성원들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은 현대의 가족 형태에서는 이러한 가족 간의 시간이 더욱 간절하다. 이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나의 고향은 전남 나주이며, 나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직 나주에 살고 있다. 내가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 우리 가족은 떨어지게 되었는데, 대학 신입생 때만 해도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자주 본가에 내려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바쁜 일상을 핑계로 가족을 보러 가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당연히 가족과의 이야기도 줄어들었고 서로 간 마음의 거리는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본가에 내려갈 명분을 만들어 준 건 바로 제사였다. 제사를 지내러 내려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제사의 의미엔 시큰둥했지만, 가족들을 보러 내려갔다. 오랜만에 자연을 접하고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멀어졌던 가족과 다시 가까워짐을 느꼈고 공자가 강조하던 친친이애인(親親而愛人)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듯 현대에서 제사의 의미는 제사 그 자체의 의미보단 그것이 가져다주는 선한 영향력의 의미가 더 크다. 가족이 같은 조상을 공유함을 깨달을 수 있으며, 1인 가구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족과의 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하나의 뿌리(祖上의 根源)를 섬기는 것이 제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 제사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사는 인간성을 담고 있는 의례이다. 이것은 내가 어머니께 외가의 제사 행태를 들으면서 깨달은 내용이다.

- “엄마가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제사 때 보태라고 쌀 조금, 음식 조금씩을 그릇에 담았다

주셨어. 그리고 네 외할머니는 그 그릇을 빈 채로 보내지 않으시고 꼭 제사가 끝나면 남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돌려보내셨지.”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라는 의례 안에서 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사 그 자체도 물론 인(仁)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이지만, 위 사례처럼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이웃간의 정, 음식의 나눔 등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인(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올해는 엄마가 혼자 제사를 준비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 본가에 일찍 내려가서 음식 장만을 도와드렸는데, 이렇듯 효(孝)와 인(仁)의 실현은 제사를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드러나는 인간성의 실현은 또다른 제례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다.

제례의 전통적 의미는 조상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감사와 보답에 있지만, 이는 현대인이 공감하기에는 힘들다. 우리의 선조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례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면, 이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시중(侍中)적인 제례의 의미가 필요하다. 나는 두 가지의 제례의 시중(侍中)적 의미를 찾았다. 바로 가족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과 인간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제사를 통해 과거에 비해 떨어진 가족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이웃간의 사랑, 음식과 노동의 분배 등의 인간성있는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례의 현대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의미없는 허례허식으로 보지 않는다. 제례야말로 현대에 와서 퇴색된 가족과 인간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고, 인(仁)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 / 15:00 ~ 16:45
기계공학부 2019310415		성명
담당교수 : 김종석	검인	
		한글 : 백금열 / 한자 : 白金烈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 빨간 모자 속 감춰진 고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역을 했다. 2년 전 여름,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조교에 대한 이미지는 각자 다를 것이다. 공포의 대상일 수도, 추억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 하나 확실한 것은 조교라는 직책은 수많은 또래의 남성들을 지휘자의 입장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태껏 학급회장이나 동아리 팀장 정도만을 경험해본 나에게는 새롭고 고된 경험이었다. 군 인권이 강조되면서 특히나 과도기에 있던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한 경험은 예에 대한 나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교는 훈련병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간부들의 통제를 받는 일반 병사이기도 하다. 지휘자로서, 소위 ‘꼰대’라 불리는 기성세대들이 느낄 법한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반대로 일반 병사로서, 젊은 세대가 겪을 법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수직적인 집단인 군대에서 겪었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현재 시대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수직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기성세대와 개인을 우선시하고 수평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요즘 세대 간의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 예전처럼 군기를 잡거나 참여를 강요하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다른 세대의 가치관을 못마땅해하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면 결국은 원점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성세대의 가치관 형성에는 강압적인 교사, 병영 부조리, 가부장적인 가정환경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중 일부는 일제 강점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공자의 말씀대로 예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명분 없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만행을 저질렀던 일제의 잔재는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한다.

앞서 시대적 상황과 사회, 역사적인 고찰을 한 이유는 내가 군 생활하면서 겪은 상황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네가 여기서나 조교지,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유세야.” 많은 훈련병들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생각이다. 나 역시도 훈련병 시절에 했던 생각이고 심지어 내 동기 조교는 직접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훈련병들을 지도하다 보면 대놓고 반항하진 못하더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숨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훈련병을 한 번 더 혼냈던 기억이 있다. 특히 취사장의 사정으로 인해 배식량을 제한한다거나 PX 구매 가격을 제한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갈등이 더 많아지고는 한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 한 사람이 같은 나이 또래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통제하다 보니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교의 입장에서 큰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기를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훈련병들에게 폭언을 하고 일차려를 부여하고는 한다. 질서를 확립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칠 대로 지친 조교들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강압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참다못해 폭발한 조교들을 보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예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예기』 「곡례」에는 **예는 서로 주고받는 것을 숭상하니, 자기만 하고 오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며, 또한 오기만 하고 가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훈련병이 조교의 말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므로 따르지 않을 시 강압적으로 통제해도 된다는 생각은 주고받는 예의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본인의 지시에 잘 따르기를 원한다면 훈련병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 역시도 초창기에는 심한 말도 많이 하고 열차려도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유도 없었고 훈련병들을 빠르게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정당화했던 것 같다. 그 생각들이 모두 평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나의 감정으로 인해 훈련병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모질게 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물론 화내고 소리 지르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다. 하지만 훈련병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조교보다는 배려해주는 조교의 말을 더 잘 들을 수밖에 없다. 나 역시도 훈련병들을 격려하며 작업을 진행하였을 때 일이 더 빨리 끝나고 완성도도 좋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예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한쪽에 대해서만 예를 시행할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억압이고 폭력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본인을 공경할 것을 당연하게 강요하면서도 반대로 본인은 젊은이들에 대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예기』 「곡례」에서는 **공경은 몸으로도 나타나고 마음에도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조교와 훈련병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훈련병의 입장에서,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는다면 혹은 혼날까 봐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진정한 공경이 아니다. 반대로 조교들도 훈련병을 진심으로 아끼고 격려해줌으로써 조화로운 중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논어 속 **본바탕이 외형보다 지나치면 촌스럽고, 외형이 본바탕보다 지나치면 꾸미는 것만 잘한다. 본바탕과 외형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군자이다.** 라는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하고 적절한 형식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하지만 이때 그 형식이 지나쳐도 좋지 않고 미비해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자는 **본질에 딱 맞는 형식이 적당하다는 의미의 문질빈빈**에 대해서도 강조하고는 했다. 예를 들어 훈련병이 고민을 상담할 때 조교는 대충 듣지 말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진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반대로 훈련병은 조교의 정당한 지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따름으로써 적절한 형식을 통해 서로에 대한 예를 표할 수 있다.

반대로 본질에 비해 형식만 과도한 것을 허례허식이라고 한다. 군대에는 유독 허례허식이 많다. 예를 들어 지휘관의 부대 방문 일정이 잡히면 부대 전체가 평소에 하지도 않던 대청소에 동원되는 상황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공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외형도 필요하지만, 실질이 부족한 것은 예와 악의 근본정신과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평소에 정리정돈이라는 임무를 소홀히 했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군 복무 당시에 병사 부실 급식 사태를 기점으로 전체적인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육군훈련소가 그 타깃이 된 시점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훈련병이 조교를 신고하면 해당 조교는 잘잘못과 관계없이 웬만하면 처벌을 받는 분위기였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되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예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조교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었다. 사실 조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교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본인이 신고한 조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훈련병이 앙심을 품고 SNS 혹은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여 일을 키울 것이 두려워서 일단은 해당 조교를 처벌하고 보는 사례가 많았다. 문

제의 원인은 지휘관에 있다. 훈련병으로 인해 사건이 커짐에 따라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교재를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 욕구와 출세나 성공 등의 사회적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므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부하들을 자신의 사회적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간부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 물론 원칙대로 처리하는 지휘관들도 많겠지만,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집단에 대한 인식을 망치는 법이다. 더불어 해당 조교에게 처벌을 내림으로써 겉으로는 문제를 잘 처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형식만을 추구한 것이지 그 본질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허례허식이다. **‘보조개와 까만 눈동자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미소와 눈이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발산된다’**는 공자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본질이라는 바탕이 먼저 마련되고 그 위에 형식이라는 꾸밈이 더해져야 참된 멋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진실은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처벌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는 예의 정신에 어긋난다. 마치 미소 없는 보조개, 눈 없는 눈동자와 같은 상황이다. 이는 역시 군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형식에만 치중해 겉만 꾸미는 인물들이 많다. **‘군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면에 쌓인 힘이 드러나면서 빛이 난다’**는 구절이 있다. 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교화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라져가는 예, 특히 형식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도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군에서의 경험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공자가 예의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형식이 사라져가는 대표적인 예가 관혼상제이다. 물론 시대에 따른 형식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로 만든 관이 예에 맞지만 지금은 생사를 쓰니 검소하구나. 나도 대중들을 따르겠다. 당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은 당 위에서 절을 하니 교만하구나. 비록 대중들과 어긋나더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을 따르겠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로, 시대에 따라 변해도 되는 형식이 있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형식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 기준은 형식의 변화가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한다. 전통 관례의 형태가 간소화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은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례를 예로 들었을 때, 현대 사회에서는 삼일장으로 형태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돌아가신 이에 대한 추모의 정신과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크게 퇴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축소는 지양해야 한다. 형식이 남아있다면 필요에 따라 예에 담긴 정신을 복구할 수 있지만, 그 형식이 계속해서 축소되다가 결국 사라지게 된다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식을 통해 예의 본질을 깨닫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식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하버드 대학의 Michael Puett 교수는 **‘예의 순기능은 학습에 의한 자기 변화라면서 아주 간단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였다. 아이들에 대한 밥상머리 교육이 예의 형식을 공부함으로써 거꾸로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예시이다. 이러한 습관화를 통해 예의 본질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형식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므로 이미 많은 형식이 축소된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의 축소는 없어야 한다.

훈련소에서도 많은 형식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는 병영 부조리를 줄이고자 하는 좋은 취지이지만, 건강한 군기를 비롯한 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법한 내용도 있다. 개인적으로 군기를 확립하는 것 또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행위이므로 예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한때 SNS에서 ‘훈련병은 누워있고, 조교는 눈치 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조교에 대한 예를 상실한 행위라 생각하고 이는 훈련병들이 본인의 이익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요즘 입대하는 많은 장병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나도

그들과 같은 세대이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겠지만 지휘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개인주의적이었던 나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었다. 개인주의로 인해 훈련소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기성세대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앞서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을 하긴 했지만, 사회 갈등에는 요즘 세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갈등을 줄이고자 한다면 하나의 몸짓이나 제스처가 사람 간의 다툼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율곡 이이가 내세운 **구용과 구사**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욕구를 조절하고자 노력한다면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유가에서 말하는 중화를 이룬 마음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의 본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체득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6주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병사를 양성해야 하는 훈련소 특성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바로 형식을 통한 본질의 체득이다. 단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습관화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 본질을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예를 실천하게 될 것이고, 사회에 나와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기성세대와 조화를 이루기 용이해질 것이다. 예의 형식이 남아있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나 역시도 예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직접 실천해야겠다고 느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에 어긋났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지금까지 군대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예에 대한 고찰을 해보았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교, 훈련병, 간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형식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양지심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에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으므로 모두가 예의 실천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를 고리타분하고 속박이라고 여기는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는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애매하게 남아있는 형식을 따를 것을 강요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된다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도기 상태에 있는 훈련소도 현재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통해 강한 장병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목요일/ 13:00 ~14:50
--------------	------------	--------------------------

학부: 화학과 학번: 2021314759	성 명	한글:선명수 한자:宣明洙
담당교수: 김미라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모두와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예

“공부를 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보다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은 항상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릴때부터 하신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가정교육이 있었기에 이제는 나의 좌우명이자, 살아가는 방향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기에 나는 몇 가지 습관적인 행동이 나온다.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는 수업시간에 연필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필을 가져오지 않은 앞 사람에게 서스럼없이 연필을 빌려주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항상 이웃 주민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물론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예의를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예란 사람을 공경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거하면, 항상 배려하는 삶과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얼핏 들으면 손해보는 삶이란 나에게 좋은 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과거의 나도 손해보는 삶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다보니, 손해보는 삶이 정말 당하고만 사는 삶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를 하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먼저 손해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무리에서부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예기에서 “예는 서로 주고받는 것을 숭상하니, 자기만하고 오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며, 또한, 오기만 하고, 가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다.”라고 했다. 즉, 예는 서로 주고 받음을 기저에 두고 하는 행위로, 위에서 말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그 예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기에서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즉, 인간은 서로를 존중을 하고, 서로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함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교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노력을 하며 예의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자주 보였던 갑질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아파트의 주민들은 배달원들에게 이러한 갑질을 보여준다. 배달원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범죄 발생 시를 대비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헬멧을 벗도록 강요하고 음식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는 등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또한 겨울철 패딩 속 흥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패딩을 벗고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아파트와 빌딩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은 고사하고 배달원을 인격적으로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다.¹⁾ 이것 이외에도 한 아파트의 몇몇 주민들이 ‘경비원들이 불친절하다’ ‘왜 인사를 잘 안 하나’고 컴플레인을 걸어, 경비원께서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있었다²⁾. 물론 이 사례의 경우 일부의 주민들의 말도 안되는 컴플레인으로 인해

생긴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꼭 그 아파트에만 있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다울 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교적 발상이 뿌리깊게 내려 앉은 나라이다. 물론 가정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예를 가르치며, 자신의 자식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가정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보면, 그러한 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누군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어, 예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인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혹은 현대사회에 맞춰 그 예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논어에서는 “마로 만든 관이 예에 맞지만, 지금은 생사를 쓰니 검소하구나, 나도 대중들을 따르겠다. 당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은 당에서 절을 하니 교만하구나. 비록 대중들과 어긋나더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저라는 것을 따르겠다.” 라고 했다. 즉, 공자도 예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성균논어의 교재에 따르면, 그래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공경하는 마음이다. 예가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예의 형식이 바뀐다는 것이지, 형식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겪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서 나는 예의 중심이 되는 ‘공경’ 조차 변하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한 배달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배달 앱의 활성화와 동시에 단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달 앱에 좋은 리뷰를 남기는 조건으로 서비스 음식을 받는 ‘리뷰 이벤트’에 참여해놓고 정작 리뷰를 남기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이른바 ‘먹튀’가 많다는 것이다.³⁾ 리뷰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쌓인 많은 리뷰들은 그 음식점을 처음 접하는 손님에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리뷰를 남겨주지 않을 경우, 서비스만 받음으로써 음식점 기준에서는 매출에서 손실이 일어난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에게 매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리뷰 이벤트를 ‘먹튀’하는 행위는 소상공인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배려하는 마음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한 신문기사에서 유실물을 찾아주려다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이용하여 도둑으로 음해하여 배상을 받은 행위는 현재 공경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게 된다. 이후 사람들은 길가에 지갑, 돈 등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서 경찰서에 맡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건드리지 않은 채로 지나가기 바쁘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상대에 대한 공경과 배려가 적어지는 그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예의 기준은 무엇인가? 뼈대가 되는 기준은 위에서도 언급한 ‘공경’ 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그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기준을 사회에 널리 퍼뜨리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아직, 공경과 같은 예를 지키지 못하여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N번방 사건, 매우 많은 살인 사건, 그리고 이외에도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엔 가평의 한 계곡에서 두 남녀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범죄를 과거에도 한 혐의도 갖고 있다.⁵⁾ 성균논어 수업에서도 2주차 토론을 ‘오늘날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각종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인성의 부재로 보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성교육의 부재를 2500년 전 공자의 학문인 유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세요.’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였다. 즉, 현대사회에서 예가 잘 지켜지지 않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구구절절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현재 사회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가 너무나 만연한 사회라는 점은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1인 가구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보도자료(2017~2047)’에 의하면 서울시 1인 가구의 구성비는 2017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30.9%, 32.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30년간 40% 가까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⁶⁾ 이러한 통계는 사람들이 점점 개인적으로 변해가며 공동체보단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주의를 회복함으로써 서로 배려하고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이는 예를 실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래 인간은 개체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이다. 개체성만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면 공동체의 약화와 피해를 낳고, 공동체의 피해 속에서는 개인의 발전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법이다. 이 말은 즉 공동체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고, 공동체주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주의 회복은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 공동체주의는 자족성을 띠고 있다. 개인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곧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앞에서 말했듯이 개인주의적이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공동체는 보통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기능적인 역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로 들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고,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입사한 회사 등이 있다.⁷⁾ 이러한 자발적이지 못하고,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체는 발전하기 어렵다. ⁸⁾센텔에 의하면 “개인이 사회적 협력의 정치를 필요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오로지 사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할 때” 이런 공동체는 수단적 범주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현대에 걸맞은 공동체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동아리와 같이 강압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공동체에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그 속에서 사랑과 우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친밀관계들이 형성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공식적인 조직에서 예를 갖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적인 공동체주의를 통해 감성적인 유대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균논어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무례하다’는 말은 경멸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예의가 없다는 말은 지위나 학식의 높고 낮음 이전에 인간다움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사회적 판결이라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예의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자신이 무례했다는 점을 인지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즉, 어떤 한 순간에는 무례하게 보이는 행동을 반드시 할 것이다. 하지만, 성찰의 유무에 따라 그 발전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찰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예민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경향이 있는 지, 그리고 자신이 과거의 어떤 상황에서 무례하게 굴었는 지에 대해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의 결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고쳐가는 방향을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단점을 하나씩 고쳐가다 보면, 무례하게 구는 환경 자체를 자신이 피할 수 있고, 설사 그러한 환경이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한들, 충분히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성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무례한 행동을 잊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과거에 했던 무례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저지르다 보면, 점차 사람들은 주위에서 멀어져 갈 것이다.

요약하자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성찰의 부족으로 인해 예를 지켜야 한단 관념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이익을 얻는 것에 더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맞다는 사회적 관념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익을 원하는 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며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할까? 나는 “갈등에서의 예와 이익의 조화에 따른 본질의 보호“라고 답을 내리고 싶다.

논어에 따르면 '본바탕이 외형보다 지나치면 존스럽고, 외형이 본바탕보다 지나치면 꾸미는 것만 잘한다. 본바탕과 외형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군자다.' 라고 했다. 즉, 예란 본질과 형식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 또한, 예의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시했지만, 그러한 본질의 구현을 위한 형식을 무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성균논어 교재에도 나와있듯이, 조화는 예의 실현을 위한 소중한 덕목이라고 한다. 물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 평화로운 일상에서만 사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화를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예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돌아보아야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 유토피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서있고, 모든 일마다 우선순위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 성찰을 하고, 예를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은 공동체주의에 맞게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의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행동으로 '무례하다' 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처럼, 예란 갈등에서 그 빛을 발하는 인성으로, 자신의 이익과 지속적으로 생각했던 예를 적절히 조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경' 이라는 예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적절한 이익도 챙길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를 꿈꾸며 예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예상해보자. 먼저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 것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경쟁자 견제, 비도덕적인 행위로 얻는 이익 등 남을 배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없어질 것이다. 이는 공동체주의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철저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강압적, 의무적인 공동체 생활 대신, 자신이 원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여 감성적인 유대감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이라는 이익, 그리고 서로 공경하는 예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논어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저 과거의 학문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쓰인 논어는 현재에도 똑같이 그 일들이 반복된다. 즉, 논어는 현재와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미래에 더 각박한 사회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그 사회를 경계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점점 문제를 푸는 속도와 개념을 익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의란,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자신이 그러한 예를 갖추는 것이 습관화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동이 나올 것이다. 결국, 공동체주의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김동호 기자, 뉴스퀘스트 <"배달기사를 범죄자·짐짝 취급"...일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갑질' 논란> 2021.02.02. <http://www.newsquest.co.kr>
- 2) 일요신문 <경비원에 '갑질' 논란, 입주민 "조폭 보스에게 '90도' 인사하듯..죄송스러웠다"> 2015.11.06.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0355
- 3) 이가영 기자, "리뷰 이벤트 참여 신청해놓고 먹튀 천지" 배달 식당들이 온다. 2021.09.21.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9/21/OETGX46DLJHYREU7ZG77SALU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4) 파이낸셜뉴스, 수원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고소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혐의 어떻게 밝혔다. 2021.05.20. <https://www.fnnews.com/news/202105201123192312>
- 5) 김성훈 기자, 국민일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검거...부모 설득 끝 자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81252&code=61121111&cp=nv>
- 6) 류혜주, 김석경.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편의시설과 주거서비스에 관한 문헌 내용분석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4 (2021): 1-11.
- 7) 정성훈. (2016). 공동체주의 공동체의 한계와 현대적 조건에서 현실적인 공동체. 도시인문학연구, 8(2), 133-154.

-
- Jung Sung-hoon. (2016). The Limits of Communitarian Community and An Orientation for Actual Community under Modern Conditions. *Studies in urban humanities*, 8(2), 133-154.
- 8) 이범웅. (2020). 공동체주의의 시민성의 성격과 시민성 함양에 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70(0), 219-249.
- Lee Beom-ung. (202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ultivation of Citizenship of Communitarianism.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SOCIETY*, 70(0), 219-249.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 15시~17시
--------------	------------	--------------------

학부(과, 전공): 경제학과 학번: 2021312742	성명	한글: 양가연 한자: 梁加娟
담당교수: 김 단 영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예(禮)의 부재, “혐오의 시대”

혐오의 시대: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

공자는 ‘예’의 본질적인 정신을 살려 조화의 덕목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질서정연한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보았다. ‘화기치상(和氣致祥)’은 음(陰)과 양(陽)이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화합하여 조화를 이룰 때 상서(祥瑞)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음과 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즉, ‘예악’이 갖춰져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인 ‘한남충’과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인 ‘김치녀’, 중고등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인 ‘급식충’과 노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틀딱’,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짱깨’와 동남아를 비하하는 표현인 ‘똥남아’, 이외에도 아이가 있는 여성을 비하하는 ‘맘충’,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개독교인’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오 표현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의 욕설과 폭행, 심지어는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성별, 세대, 국적, 종교 등 수많은 기준으로 편을 갈라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다. 즉, 서로 다른 것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예악’이라는 가치가 오늘날에서는 힘을 잃은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의 부재는 일명 ‘혐오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나는 본 에세이에서 혐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세대에 대한 혐오’와 ‘성별에 대한 혐오’에 대해 알아보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세대에 대한 혐오: 정말 그들이 ‘틀딱’과 ‘꼰대’일까?

‘틀딱’은 ‘틀니를 딱딱거린다.’를 줄인 단어로, 나이를 빌미로 참견하고, 공공장소 예절을 지키지 않는 노년층을 비하하는 은어이다. ‘꼰대’는 권위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이다. 이러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혐오는 표현을 만들고, 표현은 혐오를 만들기 때문이다. ‘틀딱’이라는 표현은 모든 노인을 ‘틀딱’이라고 인식하게 만들며, ‘꼰대’라는 표현은 선한 의도로 조언하려는 사람까지도 ‘꼰대’로 만들어버린다. 굳어진 혐오 표현은 고정관념을 만들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조화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게 사장님께서 놓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자 “틀니 딱딱”이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던 경험이 있다. 또한, 학창 시절에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지적인 선생님들이 뒤에서 ‘꼰대’라고 불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선한 의도를 가진 행동도 혐오 표현을 통해 한순간에 악한 행동으로 치부되기 쉽다.

나 역시 이러한 혐오 표현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연합동아리를 운영했는데, 원활한 활동을 위해 빨리 후배들과 친해져야 했다. 후배들이 더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배들에게 했던 조언은 한순간에 ‘꼰대 짓’이 되었으며, 이후로 나는 후배들을 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혐오 표현은 행동과 발화의 의도를 왜곡하고, 한 사람을 온전한 개인 그 자체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는 ‘공경하는 마음’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야 할 예(禮)로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 표현들은 현대사회에서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공경’이라는 가치가 흐려짐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진다.

오늘날 상당수의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갖춘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고 늙기만 한 인물’로 여겨진다. 이것은 혐오 표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자 혐오 표현에 의해 강화되는 잘못된 현상이다. 무시당하는 어른들 역시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존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왜 노년층과 웃어른들을 ‘틀딱’과 ‘꼰대’로 여기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일방적인 ‘예’를 요구하던 권위적인 어른들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들과 노인들은 “하여간 요즘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라며 많은 젊은 층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다. 존중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편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들과 노인들을 공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공경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존중받지 못하며, 존중하지 않는 어른들은 공경받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화하고, 상대를 향한 ‘공경’과 ‘존중’이라는 덕목을 훼손한다.

“젊은이가 어른을 공경함과 동시에 어른은 젊은이를 존중해야하고, 학생이 스승을 공경함과 동시에 스승도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가 된다.”¹⁾

이처럼 ‘예’는 주고받을 때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상대를 공경하고, 자신을 공경하는 상대를 존중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고 ‘예’가 확립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성별에 대한 혐오: 젠더 갈등, 음(陰)과 양(陽)의 분리

앞서 언급했듯, ‘한남충’과 ‘김치녀’라는 표현은 한국 남녀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다. 이처럼 오늘날 남녀가 서로의 성별을 혐오하는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젠더 갈등은 두 집단 그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못한다. 어떤 이는 현대 사회를 젠더 갈등을 넘어선 ‘젠더 전쟁’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전쟁은 이득보다도 상처와 손실을 더 많이 남긴다. 남자를 혐오하는 ‘남혐’의 편견을 모든 남성에게 대해 일반화한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분노한 많은 남성들은 여성을 더욱 혐오할 것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성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반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례한 사상에서 비롯된 혐오는 부메랑 같은 존재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킨다.

세대에 대한 혐오에서 언급했듯, 혐오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내 정상적인 소통과 조화로운 관계 맺음을 어렵게 한다. 젠더 갈등이 지금만큼이나 심화되기 이전인 중-고등학교 시절, 건전한 페미니스트를 추구했던 내 짝꿍은 남녀 모두의 권익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아이였다. 그러나 사회적 혐오가 심화됨에 따라, 짝꿍의 사회적 활동은 줄지에 ‘남혐(남자 혐오)’과 ‘페미충(페미니스트를 비하하는 은어)’의 활동이라는 주변의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너 설마 페미야?”, “페미는 정신병 아니야?”라는 다른 친구의 질문은 어렸던 내 짝꿍을 움츠러들게 했고, 이후 짝꿍은 여성 권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 혐오는 의도를 왜곡시킨다. 자신의 의도가 왜곡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길 망설일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사고로, 공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고 배척받을 것이 두려워 사회 현상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현대 사회가 바람직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매우 더뎠을 것이다.

“예를 통해 확립한다는 것은 자신이 세운 뜻을 사회가 용인하는 방법을 통해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선한 생각과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상대가 납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표출한다면 오해를 일으키고 해를 끼친다.”²⁾

“예는 어느 한쪽에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³⁾

자신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 실천 방안은 ‘협오’가 아닌, 양성을 모두 존중하는 방법으로 표출되어야 진정 ‘예’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성(음)과 남성(양)을 서로의 ‘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한 팀’으로 보아야 한다. 즉, 남녀가 서로를 적대시할 때가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음양이 조화로운 평등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우리는 상대를 향한 ‘예’를 갖추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禮)의 전파가 만드는 조화로운 사회

협오는 개인보다, 집단에서 더욱 강화된다. 대표적인 예시는 익명성을 지닌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직접 마주치지 않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숨길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온라인에서는 ‘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무례한 표현과 행동은 협오 표현을 강화하고 협오의 시대를 부추긴다. ‘예’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온라인상에서 역시 ‘예’의 부재는 조화로운 관계를 망친다. 즉, 우리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온라인 예절이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다.

공자는 ‘예(禮)’를 ‘인(仁)’의 실천 방법으로 바라보았다. 인(仁)의 실천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상대를 진정으로 공경한다면, 그 마음은 곧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대를 판단하고 선불리 행동하기 이전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예’를 갖추는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때야 비로소 협오는 사라지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개체는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지 않은 독립된 개체는 없다. 모든 사물들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 개체의 흥망과 생사는 다른 개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개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조화이다. 고대에 예와 함께 음악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러한 조화로운 측면을 중시했기 때문이다.”⁴⁾

우리는 자연 내의 모든 개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곧 우리가 왜 서(恕)의 마음을 지니고 인(仁)을 실천하고자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내재되어있는 선한 본성을 일깨워야 한다. 이러한 선한 본성의 대표적인 덕목은 상대에 대한 ‘공경’이자 ‘존중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협오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로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마음에 가득 찬 선한 뜻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예’를 실천할 수 있으며, ‘예’의 확립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협오의 시대’를 질서 정연한 ‘공존의 시대’로 이끌어줄 것이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상대를 향해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예의 있는 형식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늘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성찰함으로써 완전히 ‘예’를 갖춘 사람이 되도록 나아갈 것이다. 나의 이러한 노력이 주변에 선한 영

향력을 미쳐, ‘예’를 확립하고, 보다 질서정연한 ‘공존의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본 에세이를 마친다.



-
- 1) 이천승 외,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185p.
 - 2) 이천승 외,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181p.
 - 3) 이천승 외,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178p.
 - 4) 이천승 외,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174p.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 13시~15시(선택)
--------------	------------	------------------------

학부(국어국문학과) 학번: 2021310337	성명	한글: 이류아 한자: 李柳亞
담당교수: 서근식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 고려(포함)해야 할 사항 - 자신과 사회·역사에 대한 성찰 / 자신의 경험과 생각 / 현재 시대적 상황, 『논어』, 『맹자』 등 고전 활용

제목: <불편한 편의점>

요즘 21살 숙녀 세 명의 술자리 안주는 ‘진상 손님’이다.

14살 중학교 시절 학교 앞 떡꼬치를 먹으며 친해졌던 나와 내 친구들은 어느새 숙녀로 자라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세 친구는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자 모두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그래서 근래 들어 우리 세 사람의 대화 소재는 주로 아르바이트하다가 겪었던 에피소드이다. 그중 서로에게 가장 공감받고 위로받는 이야기는 단연 ‘진상 손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어제는 말이야. 어떤 손님이 분명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문했는데, 자기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켰다면서 나한테 귀먹은 것 아니냐면서 성질낸 거 있지?”

“엥? 자기가 잘못 주문해놓고 왜 성질이래?”

“그러니깐 말이야.”

“난 말이야, 나는 햄버거 만들기만 하는데, 나한테 배달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짜증을 내는 손님도 있었다니깐?”

“와, 진짜 힘들겠다.”

“어떤 손님은 코로나라 매장 영업이 일찍 끝나는 걸로도 뭐라고 하더라니깐?”

“아이고. 남의 돈 벌기 참 힘들다.”

나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진상 손님들을 만나게 되었다. 인사를 안 받는 손님들은 부지기수이며, 카드와 현금을 던지는 일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한번은 마스크를 미착용한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부탁하여 침을 맞은 적도 있었다. 담배를 사러 오는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괜히 나에게 성질을 내고 나가는 경우도 빈번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 접했던 ‘망콩 리턴 사건’ 혹은 ‘현대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은 정말 특수한 사례라고 믿었다.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무례함은 과하게 각색된 연출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생활이 전무했던 한 대학생의 착각이었다. 나는 인생 첫 사회생활을 통해 고객과 직원 간의 ‘예의’가 사라진 차가운 현실을 볼 수 있었다.

항상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마친 후 혼자 걷는 길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아르바이트 업무 환경에서도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많은데, 미래의 직장 환경에서도 나를 상처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 주변에만 이렇게 진상이 많이 있는 것인가?, 문제는 혹시 나에게 있는 건가?’라는 여러 걱정과 의문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긴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동기들과 함께 간 서점에서 매우 끌리는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불편한 편의점>,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책 제목이었다. 나는 이 책의 제목에 매료되어 결국 책을 구매해 읽어 보게 되었다. 이 책은 지하철 노숙자였던 ‘독고’ 씨가 정년퇴직 교사이자 한 편의점 주인인 ‘염영숙 여사’의 도움을 받아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고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 속에도 존재하는 진상 손님 이야기에 공감되는 한편 편의점 손님들과 정을 쌓아가는 ‘독고’의 에피소드는 재미를 위한 소설적 허상이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책을 완전히 읽고 난 후 책의 여운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나는 나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내가 손님을 진상 손님으로 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로 절제되지 않은 공손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예로 절제되지 않은 조심성은 사람을 위축시키며, 예로 절제되지 않은 용맹은 좌충우돌의 혼란을 초래하며, 예로 절제되지 않은 정직은 인간관계를 박절하게 만든다.” (『논어』)

‘독고’ 씨는 절제된 ‘예’를 기반으로 손님들을 응대하며 조화를 추구하였다. ‘독고’ 씨는 진상 손님의 행위를 무력이 아닌 단호한 표정으로 제압하고, 편의점 사장님과의 사이에서 거리를 두며 예의를 지키는 등 적절한 ‘예’를 행사하였다. 또한, 옆에서 동료가 편의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험담을 한들 그들과 자신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어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매뉴얼에는 매장에 출입하는 손님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진상 고객들에게 지쳤다는 이유로 혹은 오늘 하루가 피곤했다는 핑계로 나는 제대로 그 항목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또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는 손님들을 상대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찡그리고 격양된 목소리로 응대하였었다. 몸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손님들은 나의 행동거지를 통해 내가 그들은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있는 나의 마음을 느꼈던 것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행동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나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들을 모두 ‘진상’이라고 여기곤 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만 ‘예’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바라왔다. 하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나의 행동이 ‘예’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타인의 ‘무례함’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다.

도대체 어떤 손님이 ‘예’를 갖추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예’를 갖추어 행동해줄 것인가.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내가 물건을 사러 잠시 들린 편의점에 불 공손한 아르바이트생이 똥한 표정을 짓고 나를 응대해준다면, 나 같아도 눈살이 찌푸려졌을 것이다.

“예는 서로 주고받는 것을 숭상하니, 가기만 하고 오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며, 또한 오기만 하고 가지 않는 것 또한 예가 아니라고 한다. 한쪽만 시행하는 예는 진정한 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기』)

‘예’는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나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책을 읽고 시작한 성찰을 통해 나는 진정으로 편의점 이용 손님들에게 예의 있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성찰하는 방법으로 『예기』의 구용(九容)과 『논어』의 구사(九思)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나 또한 이이 선생과 마찬가지로 바른 차림새와 마음가짐에서 손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비릇될 수 있다고 느꼈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 이를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업무 시간이 오후 시간대인 것에 반해 항상 늦장을 부리며 준비를 미루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모자를 푹 눌러쓰고 편의점에 가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모자를 착용하고 일을

하다 보면, 손님과 눈을 제대로 맞추며 응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타인이 보기에든 용모가 단정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나는 다음 날부터 외출 준비를 미리 하여 용모를 단정히 준비하고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손님이 매장에 출입하면 온 마음을 다해 밝은 목소리로 맞이하였다. 이 사소한 변화 때문일까.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손님들의 수가 현저히 준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오히려 요즘 이렇게 친절한 아르바이트생이 없다고 도리어 칭찬해주는 손님들까지도 계시게 되었다.

“시를 통해 흥기 시키고, 예를 통해 확립하며, 음악을 통해 완성한다.” (『논어』)

일련의 경험을 통해 『논어』 속 ‘시를 통해 흥기 시키고, 예를 통해 확립하며, 음악을 통해 완성한다.’라는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자신이 세운 뜻을 음악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 나 자신이 모범이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을 감화하게 하는 것이 조화로운 관계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는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타인의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성찰을 통해 내가 실천한 ‘예’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올바른 ‘예’의 실천으로 인하여 상대가 스스로 느끼고 반성하여 결국은 행동의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생겼다.

“예가 없으면 안내자 없는 장님이요, 촛불 없는 캄캄한 방과 같다. 우리의 손과 발, 귀와 눈을 어디에도 둘 수 없다.” (『예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편의점 손님, 더 나아가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인 ‘예’가 필요하다. 이는 나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우리에게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께서는 예는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모르면 실수한다고 하셨다. 대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고객들에게 갖추어야 할 ‘예’에 대한 기준을 근로 매뉴얼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사법 혹은 고객 항의 대처법 등 고객과의 갈등 상황을 완만히 해결하기 위한 ‘예’의 기준을 학습한 후 업무 상황에 투입된다. 반면에 고객들은 서비스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실천해야 하는 ‘예’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 아무리 서비스업 근로자들만 고객과의 완만한 관계를 위해 ‘예’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예를 확립하지 못한 채 소통하게 된다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땅콩리턴 사건” 또는 “현대 백화점 갑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들도 ‘예’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고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공공 교육기관 차원에서 학생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편한 편의점”

소설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손님의 안식처가 되어 주는 편의점을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표현하였다. 나는 이 ‘불편한 편의점’을 새롭게 정의해보고자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너무 욕구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욕구와 욕망을 참으며, 손님과 아르바이트생 간의 ‘예’가 지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나는 이런 편의점이야

말로 진정한 ‘불편한 편의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는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

아마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동네의 가장 ‘불편한 편의점’은 우리 편의점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 편의점을 ‘불편한 편의점’으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09시~11시
학부(신소재공학부, 공과대학) 학 번: 2018313345	성 명	한글: 이승윤 한자: 李 承 潤
담당교수: 임선영		
검인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진실된 마음과 함께라면 ‘예(禮)’는 항상 나의 옆에 존재한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릴 때부터 ‘예’의 중요성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어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른 만나면 누군지 몰라도 항상 인사를 해라’, ‘어른을 만나면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를 먼저 해라’, ‘식당이나 가게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라’, ‘예의가 없으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와 같은 말들을 항상 들어왔다. 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이 아니더라도 택배기사님, 경비아저씨를 만나도 항상 ‘고생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하였다. 내가 했던 인사와 ‘예’는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행했던 행동이었다. 그러나 유학에서 ‘예’는 인간다움의 기초라고 한다. 특히 순자는 예를 매우 중시했다. 그는 예의 기원을 사회질서를 위한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파악도 했다. 수업 시간에는 ‘예’에 대해서 ‘무불경’이라는 말을 들었다. 공경은 몸과 마음에 일관되게 나타나 외적으로는 구체적인 예절로 드러나고, 내적으로는 선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 예절 및 공경을 가식이라고 하고, 허례와 허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어릴 때부터 그저 어른들이 하라는 ‘예’를 지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외적으로만 지켰다.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 나의 예절 및 공경은 허례와 허식에 불과했다. 군대를 다녀와서 나는 더욱더 이런 마음이 커졌다. 상급자에게 대한 예의, 인사는 꼭 지켜야했고 이를 어길 시 징계를 받았다. 나에게도 사회도 군대와 다르지 않았다.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어른이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예’를 강요받았던 기억이 많았다. 버스를 탔을 때도 자리를 양보하면 당연하다는 듯한 모습으로 그냥 앉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는 시선도 난무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에게 ‘예’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나는 군대를 전역하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었던 나는 친구의 권유로 ‘대선주조’에서 관측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고

팀장님도 고객에게 다가갈 때 항상 상냥하게 무조건 친절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난 진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으로 친절한 미소와 말투로 고객에게 다가갔다. 역시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례한 반응들이었다. 판촉물을 더 많이 달라, 술을 한 잔 따르고 가라는 말은 ‘예’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느꼈던 나에게 확신을 점점 주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른 고객님의 한마디에 나는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 다른 날과 같이 나는 판촉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고객님의 웃으시며 원래 마시던 참이슬에서 대신으로 주류를 바꿔주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웃는 모습이 이쁘다며 칭찬을 해주시고 판촉물을 전달하였을 때 더 달라는 다른 고객님들과 달리 정말 고마워하셨다. 처음에 한 분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3시간이라는 아르바이트 시간 동안 많은 분이 나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다. 일이 끝나고 평소랑 무엇이 달랐는지 생각을 했다. 그것은 나의 태도였다. 일하기 전에 나는 친구랑 밥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아르바이트할 때 평소보다 더 많이 웃으면서 진심으로 고객님의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첫 번째 고객님의 반응에 나는 더 좋아서 다른 고객님의 진심으로 다가간 하루였다. 단순히 그날 하루만 그랬다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전날의 좋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다음 날에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했다. 역시나 상대방들도 나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나는 정말 그날 하루의 기분이 바뀌었고 기분도 달라졌다.

나의 진심에서 나온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서 나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이후로 상대방에게 형식적으로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며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손님이 자신에게 잘해준다면 그날의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가게를 들어갈 때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전에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한 손님으로 그냥 목적에 맞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면 그날 이후로 직원에게 나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물론, 그것을 바라고 행동하지는 않았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다고 당연히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내가 일했을 때 받았던 뿌듯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단지 전달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올 때면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꼭 하고 계산을 하고 나갈 때면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는 항상 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직이니 당연히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하는 돈에는 그들의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지불하는 우리의 돈은 음식과 그 자리를 사용한 비용이지 우리가 당연히 친절을 받아야 하는 돈은 아니었다. 또한 나는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도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고객센터를 전화할 때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상담하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가

죽일 것입니다. 폭언을 삼가해주십시오.’ 라는 멘트가 나온다. 평소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야 말 한마디와 예의의 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을 꼭 한다.

삶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으로 율곡이이는 구용과 구사를 꼽았다. 구용이란 용모를 반듯하게 유지하기 위한 아홉 가지 방법이고, 구사는 동작 하나하나에 담겨져야 할 바람직한 아홉가지 자세이다. 구용은 신중한 걸음걸이, 공손한 손동작, 정면을 응시하는 눈동자, 다문 입, 조용한 목소리, 곧추 세운 머리, 고른 숨쉬기, 중후한 자세, 진중한 얼굴 표정의 동시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구사는 명료한 인식, 공평한 이해, 온화한 심성, 공손한 태도, 진실한 대화, 신중한 일 처리, 절실한 질문, 후환의 대비, 의로움의 추구로 이루어져 있다. 구용과 구사를 동시에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예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예를 갖추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를 실천하고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 무선 이어폰은 필수가 되었다. 사람들은 가게를 들어갈 때나 친구를 만날 때도 무선 이어폰을 끼는 경우가 많다. 나의 주변에도 항상 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다. 가게에서 계산할 때도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목소리는 당연히 들린다. 그렇지만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면 이렇게 사소한 나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 귀찮아서 빼지 않았던 무선 이어폰 하나를 빼는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의 태도도 중요하다. 최근에도 성균논어 수업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무례한 태도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카메라를 켜두고 길을 건너는 학생, 카메라를 키고 식사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 켜둔 상태로 카메라 각도만 돌려 자는 학생 등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카메라를 꺼두는 것보다 못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예’만을 중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저 카메라를 켜두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를 지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카메라만 켜두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교수님께 진실된 ‘예’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라면 카메라를 켜두고 수업시간과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형식적으로 카메라만 켜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카메라를 꺼두는 것이 더 나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담은 ‘예’와 겉만 번지르한 형식적인 ‘예’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공자의 아끼는 제자로서 시(詩)와 예(禮)에 통달했던 자하(子夏)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경(詩經)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곱게 웃는 모습에 보조개 예쁘고, 아름다운 눈동자 흑백이 분명하네. 흰 바탕에 고운 채색 더한 듯하네’ 이 시구(詩句)가 무슨 의미입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繪事後素(회사후소)" 그림 그리는 일은 하얀 바탕이 있는 후에 할 일이다)니라. 이에 자하가 “형식을 갖추는 예(禮)가 충신(忠信)을 갖춘 뒤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크게 기뻐하며 “내 뜻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하로구나. 이제 비로소 함께 시(詩)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구나”

繪事後素(회사후소)란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는 이후에 한다는 뜻으로, 본질이 있는 연후에 꾸밈이 있음을 비하여 이르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예(禮)’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사람들은 많이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에 실속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고 느낀 경험 이 다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느끼고 나를 그렇게 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된 ‘예’를 느꼈다면 나 또한 상대방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화로운 관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이 바뀐 것은 나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를 실천하였다. 인격 수양, 예를 실천하는 것에는 큰 노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나에게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예를 갖추기 위해 마음가짐부터 바뀌었고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을 한다면 유학에서 말하는 완전한 예를 갖추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예는 인간의 기본이다. 우리는 예를 통해서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와 그렇지 않은 ‘예’는 상대방이 분명히 느낀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11:00~13:00
--------------	------------	------------------------

글로벌리더학부	학번: 2021312242	성명	한글: 임연주	한자: 林妍周
담당교수: 금 종 현	검인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예: 자신의 생각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품위 있게 표현하는 것

인간은 어떻게 지금까지 타인과 함께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알지 못하면 처신할 수 없다.’는 논어의 가르침은, 인간 사회에서의 ‘예’의 중요성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예’라는 글자는 곧 우리에게 ‘예의’를 생각나게 한다. 이처럼 예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공경심의 표현을 기본으로 한다. 즉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와 질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덕목인데, 타인과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 예의는 누구나 가져야 할 필수불가결한 덕목이자 준칙이다.

이러한 예는 사람과 살아가면서 배우고, 계속 배우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업무상황에서의 기본적인 예절, 전화를 받을 때 기본적인 예절 등 다양한 상황에서 예절은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예절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진심까지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때 이러한 예절에 대해 크게 깨달았던 경험이다.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함께 담임 선생님과 사담을 나누기 위해 교무실을 찾아갔었다. 자리에 선생님이 계셨고, 찾아가 선생님께 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초코파이가 보였고, 선생님께 “저희 배고픈데 그 초코파이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라고 여쭙보았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다른 수업시간에 문제를 푼 학생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아쉽지만 줄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에 나와 친구는 장난으로 “선생님, 실망이에요~”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었다. 그 순간 앞에 앉아계신 다른 선생님께서 나와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주셨다. 담임 선생님과 친밀감에서 나왔던 말이지만, 교우관계와 사제관계를 구분지어 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예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함을 깨달았다.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른 형식적 예절,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심을 예의 있게 표현하는 본질적 예절이 고루 어우러져야함을 배웠다. 예는 시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구체화되어 때와 장소에 적합한 예절로 실현되는 것이다.

조화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조화로운 세상은 이러한 예의 개념 아래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예란, ‘자신의 생각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품위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말’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타인의 생각을 경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을 예의 관점에서 다듬고, 마모시켜 둥글게 만든 후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야 받는 상대방도 부드럽고 아프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중학교 때 선생님께 ‘실망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나름대로 친밀감이라는 명목 하에 투박하게 건넨 구슬이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뾰족한 유리조각이었던 것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웃으며 받아주시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런 수많은 유리조각들을 받다보면 결국 몸에 상처 하나는 나기 마련이다. 이를 걱정하여 담임 선생님 앞에 계셨던 선생님께서 나에게 대한 충고와 담임 선생님에 대한 걱정을

조심스럽게 건네졌던 것이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석인 생각들을 다듬어 보석으로 만든 후 타인이 포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면모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이라는 보호 아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이라는 특징은 개인의 한 생각과 일상들을 지구 건너편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앞으로의 경제발전과 사상의 자유, 각종 보안 및 사람들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익명성 뒤에 숨어 자신의 원석을 다듬기는커녕 상대방에게 던져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뉴스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악플에 시달려 자살하는 유명인들의 소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날선 비난과 욕설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때가 많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을 좋아하는데, 특히 ‘나연’이라는 멤버를 제일 좋아한다. 유튜브를 보면 트와이스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팬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지만, 단순한 비난과 비방의 목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수도 없이 많다. 노래를 못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못생겼다느니,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등 차마 입을 수 없는 욕설 또한 존재한다. 가수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러나 비방 앞에서는 가수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되새겨야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전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내뱉는 말을 다듬고 다듬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신의 생각을 품위 있게 표현하고, 또 상대를 품위 있게 배려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자신의 생각 또한 항상 ‘다른’ 분야가 아닌 ‘틀린’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 위의 예시를 활용해 이야기해보자면, 나연에게 ‘춤을 너무 못 춰서 보기 싫다.’라고 댓글을 남기는 것이 나연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춤 연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 충고이지, 그러한 말은 비난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저런 부류의 생각을 가진 것은 ‘다른’ 생각이 아닌 ‘틀린’ 생각이므로,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치관을 정립하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타인과 대화해야 할지에 대해 처음부터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는 타인과의 꾸준한 대화와 배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나가는 것이다.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배운 상태에서,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품위 있게 표현하고 또 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고 이야기해나가며 예를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얼굴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감정이 심화되면 표현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에 대해 충분히 배운 후 자신의 생각을 격식 있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갖추어야할 예라고 생각한다. 개개인과 집단이 예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천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상인 ‘조화로운 관계’, 나아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 있을지, 악이 있을지, 아니면 그 무엇도 없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 학설 모두 그럴 듯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것뿐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본성만을 유지한 채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본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을 것이다. 그만큼 타인과 숨을 같이 쉬어가며,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하며,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고 타인을 배려하는 방

법도 배운다.

여기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앞서 계속 이야기한 ‘자신의 생각 표현’과 연관 지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단순히 자신의 입장에만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변인들과 대화하면서 서운한 점을 이야기할 때 ‘너 전달법’이 아닌 ‘나 전달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가 나에게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너 전달법은 지양해야 한다. “네가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그 점에서 난 서운함을 느꼈어.”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서운한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같은 서운한 감정, 생각이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배려하는 것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행동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격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토대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너 전달법’으로 친구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곤 했다. 초등학교 때 나는 피구부에 소속되었는데, 같이 연습하는 친구가 나에게 공을 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 “너 왜 자꾸 나한테만 공 안 줘? 나도 같이 골고루 줘야지, 그런 행동은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친구는 내 말을 듣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표정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중학교에 올라가 ‘나 전달법’을 배우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 친구와 같은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급식을 먹으러가곤 했다. 그러던 중 내가 선생님과 상담하느라 점심을 늦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먼저 점심을 먹었다. 이에 서운함을 느낀 나는 친구에게 “내가 상담하느라 점심을 늦게 먹게 되었는데, 네가 날 기다려주지 않고 말도 없이 먼저 점심을 먹은 점이 서운했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다. 이에 친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다음부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미리 말을 하고, 같이 밥도 먹자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그 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개인의 표현 방법에 따라 상대방이 그 생각을 전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에 유의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때와 장소에 적합한 인사말을 진심을 담아 건네는 것이다. 예시로 전화를 받을 때, “왜 전화하셨어요?”가 아닌 “여보세요?”로 인사말을 건네야 상대가 전화를 잘 받았음을 인지하여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인의 비보를 접했을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인사말이 안타까움을 전하는 적합한 표현이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질 때, “안녕하세요. 저는 000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리며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사회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보면서 그에 맞는 형식적 표현을 건네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얼굴을 직접 보며 표현을 하는 것보다 텍스트, 또는 전화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이 아닌, 대면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피치 못할 사태로 인해 대면이 금지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오로지 가기 귀찮아서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받을까봐 등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대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한다면, 아직 예에 대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자 또한 이렇게 말하였다. “당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예에 맞는 것이지만, 요즘은 당위에서 절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오만한 것이다. 나는 대중이 하는 방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을 따르겠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예의 형태가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할 예의 원칙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리고 이

리한 인사말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인다고 하여도 공자가 강조한 것처럼 그 본질이 더욱 중요하다. 그 본질을 지켜야하는 것, 그것이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예는 한 순간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배우고, 성장하며 습득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품위 있게 표현하는 것이 예이고, 이 예로써 조화로운 관계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예를 지킨다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 또 상대방은 그것을 경청하게 된다. 이것이 확산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정립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들이 모이고 모여 최종적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목요일 15시~17시
--------------	------------	--------------------

학부(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학번:2020313883	성명	한글: 정성아 한자:鄭成娥	
담당교수: 임 홍 태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 ‘덜’과 ‘더’의 철학

얼마 전, 나는 선부른 주식 투자로 인하여 나름의 큰 돈을 잃었다. 남들에게는 적은 돈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푼 두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기에 그래프가 떨어질 때마다 몸이 1cm씩 땅으로 박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왜 하필이면 내가 투자한 종목만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러웠다. 그렇지만, 이건 전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부족했던 ‘나’에게서 비롯된 문제였다. 해당 주식에 영향을 준 거대 기업이나 국가, 혹은 해당 종목을 추천해준 인물을 욕하거나 탓하기에는 나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이 너무나도 많이 개입되어 벌어진 결과였다. 즉, 남 탓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저 조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주식의 위험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넘기는 것만이 최고의 해결 방안으로 남을 뿐이다. 슬프게도, 살다 보면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우리 할머니는 얼마 전 귀가하시던 중, 주택의 계단이 무너지며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다. 반년간 걷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내 탓이다’라고 하시며 허허 웃어넘기셨다. 내가 할머니였다면, 노령의 나이에 당신 혼자 가파른 계단을 오르도록 한 무관심한 자식들, 부식된 계단을 방치한 시설관리자, 넘어지는 순간 빠르게 잡아주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 등 잘못을 묻고 싶은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듯싶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누구의 탓도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계셨다. 하물며 할머니는 당신이 넘어지는 바람에 흠집이 난 계단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다. 이렇게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할머니가 그랬듯 오로지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그저 인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일까?

이에 대해서 맹자는 “不怨天, 不尤人” 라고 공손추 하편에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즉,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맹자의 이러한 발언을 현대어로 풀어본다면,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도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만을 걷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이 모든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마땅한 말이며 도덕적으로 보편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이 말이 맹자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인자한 성인인지를 직접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맹자와 같이 온화한 성인이 아닌, 나와 같은 일반인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명백한 남의 잘못, 타인의 과오와 이기심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시위나 단체 성명 등을 통해서 그 잘못의 책임자를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감 없이 보인다. 맹자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이들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피해를 당하였을지언정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허물하지 않는 법인데, 그렇지 못하고 큰소리로 남 탓을 하는 저들은 그저 어질지 못한 소인에 불과한 것인가? 나는 이러한 맥락에 있어 맹자의 말에는 약간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을까? 공자는 논어 위령공 躬自厚而薄責於人則遠怨矣에서 “躬自厚而薄責於人，則遠怨矣.”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몸소 스스로 책망하길 후하게 하고, 남을 책망하길 박하게 한다면 원망이 멀어진다.’라는 뜻이며, 나는 공자의 이러한 발언에서 그가 끝없이 강조한 ‘中庸’의 美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공자는 앞선 맹자와 같이 그저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동시에 ‘吹毛索疵’, ‘洗垢求癍’, ‘爬羅剔抉’처럼 무조건적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조언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기다, 아니다’의 문제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덜과 더’의 문제로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가려고 한다. 즉, 남의 탓을 ‘덜’ 하고 나의 탓을 ‘더’ 하였을 때 갈등은 원만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덜과 더’ 철학, 즉 ‘中庸’의 관점에서 앞서 서술한 갈등 상황들을 다시 살펴보자, 내가 주식에서 큰돈을 잃은 것은 일차적으로 주식에 관한 공부가 부족하였던 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를 책망함으로써 나는 나의 지난 행동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더 수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나의 잘못과 동시에 일명 ‘개미투자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상장을 진행한 기업과 어린 나에게 맞는 고위험군의 투자종목을 추천해준 지인에게도 일정 부분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그들에게도 일정량의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뿐이지, 그 이상으로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 나는 가슴속에 맺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그 원망을 덜 수 있기에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나와 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할머니의 상황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는 수식이 아니다. 하나의 공식으로 풀이되지 않으며, 값을 안다고 해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러한 흑백논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풀어가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공자의 ‘덜과 더’ 철학, 즉 ‘中庸’의 참뜻을 깨달은 나는 문득 지난날의 과오가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한 과오는 바로 지난주의 성균논어 토론 시간 때에도 벌어졌다. 알다시피 나는 미술학과 학생으로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다. Fine Art를 공부하는 학생이니만큼 현대 이후의 미술 즉 Contemporary Art를 중점으로 하여 학습하고 있다. 그런데 이 Contemporary Art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두 같은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다. 과연, 이 고도로 발전된 세상 속에 순수미술이 여전히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철학적이고 상투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으나, 미술학과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장 자신의 미래, 직업, 인생, 생존 더 나아가서는 자기 삶의 가치까지 관여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이 물음을 단순한 담론거리로 치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 미술의 효용성, 가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성균논어 토론 중 그러한 담론이 잠시 진행이 되었었다. 당연하지만 미술학과 전공수업 시간도 아니었을뿐더러, 대부분의 학생이 타과생들이었기에 동시대 미술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발의된 질문과 그에 대한 분석들도 마찬가지로 표층적이었다. ‘예술은 과연 도덕적 가치를 품을 수 있는가?’, ‘현대 미술은 도덕적 가치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가?’처럼 말이다. 쉽게 발의되지 않는 나의 전공 내용을 주제로 하여 진행된 토론이 굉장히 반가웠다. 동시에 너무나도 쉽고 간편하게, ‘타자화되어’ 던져진 그 평이한 질문들이 미술학도인 나에게도 굉장히 모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인 때문인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다소 격양되고 날카로운 태도로 학우들의 질문에 반응한 것 같다. 일단 그 순간에는 ‘도덕적 가치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예술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현대 미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층적이지 않다, 현대사회가 다원화되었듯이 미술도 수많은 태도와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다소 단호하게 학우들의 말들을 끊어내었다. 그러고서는 수업이 끝나고도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변론을 되뇌며, 흥

분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는 다른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내 탓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탓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 물론 현대 미술에 대한 부실한 공교육, 그리고 대중들의 부족한 관심과 업계의 효과적이지 못한 홍보 방식 등 지독히도 현실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상황을 금방 이해한 ‘中庸’ 혹은 ‘덜’과 ‘더’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더 쉽게 정돈된다.

우선, 공자의 가르침대로 나의 잘못을 찾아 스스로를 책망해보도록 하겠다. 이때의 상황 속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여 적절하지 못한 태도로 발언을 한 나의 잘못이 가장 일차적으로 크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으면, 그것에 맞게 더 친절하고 친화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더 옳은 방식이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일지라도 서로 예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데, 내가 단지 그 분야에 있어 정보상의 우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논쟁에 참여한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러한 나의 잘못된 태도는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는 것에 있어 예를 중요시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 성찰해보으로써, 나의 과오를 인지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실수를 인지한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過則勿憚改’와 연결되며, 스스로의 과오를 대하는 것에 있어 더 유연한 태도를 갖는 연습을 수행할 수도 있게 한다. 이번에는 앞서 나를 책망함과 동시에, 외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해당 질문을 발의한 학우는 이러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논제를 발의하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또 타당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이 미술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으로만 주장을 펼치려 했던 학우들에게도 약간의 과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술의 분야를 욕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어떠한 악의적인 감정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들을 이해해볼 수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이나 조예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나도 비슷한 과오를 반드시 저질렀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처럼 외부의 상황을 인지하고, 그들을 이해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나는 가슴 속의 원망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그들을 통해 내가 미래에 저지를 수 있는 유사한 실수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를 ‘더’ 탓하고, 남을 ‘덜’ 탓함으로써, 상황은 평화롭게 정돈이 된다. 공자의 “躬自厚而薄責於人，則遠怨矣.”이 현대의 상황 속에도 매우 명쾌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는 순간인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 공자가 말한 ‘덜과 더’의 태도는 그 자체로 예가 되어 우리의 삶에 현상된다. 즉, 그의 말대로 ‘中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인 것이다. ‘不知禮 無以立’, 그것은 크게 보아 ‘不中庸, 無以立’으로 읽힐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적과 완전한 편도 없다. 또 완벽한 선도 없으며 완벽한 악도 없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나와 남을 완전히 구분지을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한 타인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끝없이 서로 얽혀서 살아간다. 즉, ‘葛藤’, ‘人間’이라는 단어에서처럼 보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등나무와 같이 서로 얽히고설켜서 서로를 밀어내기도 혹은 끌어주기도 하며 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꼬인 몸과 마음들을 억지로 풀려고 시도하며, 그것들을 툽이나 칼로 베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

다. 우리는 中庸의 마음, 즉 禮의 마음을 되뇌며 느슨해져 축 치진 부분은 ‘더’ 끌어안고, 과도하게 옥죄이는 부분은 ‘덜’ 끌어안는 방식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공존해야만 한다. 그것이 곧 나와 당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결론짓는 바이다. 나는 오늘날의 성찰을 통해서 공자의 수많은 발언이 단순히 몇 자의 한자로 남은 낡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다. 논어 수업을 통하여, 그리고 성균색을 통하여 유학이 현시대에 갖는 시사점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좋아하는 공자의 말을 끝으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13시~15시
--------------	------------	---------------------------

학부(과, 전공) 학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1314383	성명	한글: 정예본 한자: 鄭禮本	
담당교수: 함 윤 식		검인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인 없는 예, 목표 없는 수단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라’, ‘웃어른께 예의를 지켜라’. 우리나라가 과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던 만큼,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예’의 중요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말은 귀에 익숙해지도록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은 내가 예의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로 내 이름에도 ‘예(禮)’ 자가 들어갈 정도였다. ‘예의 있게 행동해라.’, ‘웃어른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온 말이다. 그 덕에 나는 내가 나름대로 예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식당이나 카페, 가게에 들어서면 늘 먼저 인사를 한다. 부탁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늘 감사 인사를 덧붙인다. 나의 의견을 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양해를 구한다. 때나 장소에 알맞은 옷을 입고 행동을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어르신 분이 있으면 자리를 비켜드린다. 처음 보는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웃는 얼굴로 대한다. 늘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남을 위해 먼저 배려한다. 나는 내가 나름대로 예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의들은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래도 난 나름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러던 와중, 나는 이번 학기에 성균 논어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인간의 덕목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인 ‘인’에 대해 배운 뒤, ‘예’를 배울 차례가 되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갔다.

“예’는 학문을 통해 또다시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충분히 예를 지키며 살고 있지 않은가?”

이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지키며 살고 있는 ‘예’를 굳이 학문을 통해 다시 배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 것이다.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라.’, ‘웃어른께 먼저 인사드려라.’ 같은 말은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알고 있을 만큼 당연한 이야기들이었다. 이미 당연하게 퍼져 있는 상식을 굳이 학문을 통해 다시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공자는 ‘예’를 인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하며 강조했다. 맹자는 ‘예’를 ‘인’과 ‘의’와 더불어 인간 본성의 하나로 규정했다. 순자는 ‘예’를 더더욱 중요시해, ‘예’의 기원이 사회질서를 위한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파악했다.

<예기>에서 예의 근본은 ‘공경’이다. 자아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담아야 하는 것이다. 예는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이다.

공자는 ‘예’를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을 극복하고 예법을 회복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예’는 인간이 가진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과제인 것이다.

내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점은, ‘예’가 ‘인’,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이었다. ‘인’이 없는 ‘예’는 말 그대로 목표를 잃어버린 수단이다. 동시에 그동안의 내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예’를 지킨 것은, 정말로 ‘인’을 실천하기 위해 비롯된 행동들이었을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한다는 뿌듯함과 자만함에 취해 결국 겉으로만 예를 갖추는 척한 것이 아니었을까?

돌이켜보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께 자리를 비켜드릴 때도, 정말 부끄럽지만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었다. 비켜주는 나 자신의 모습이 뿌듯했고 어쩌다 칭찬을 들을 때면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거나 ‘인’을 행하기 위해 비롯된 행동은 아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를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태도였다. 나는 예의를 충분히 갖춘 것 같았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느끼는 것 같지 않을 때면 가끔 짜증도 치솟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를 갖추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부끄럽지만, ‘나는 이만큼 예의를 갖추었는데, 왜 상대방은 나만큼 잘 대해 주지 않는 거야?’ 같은 생각도 많이 했었다. 결국 나의 사사로운 마음에 의해 행한 걸치레였던 것이다.

언제 한 번 이와 관련해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어느 늦은 밤 나와 친구는 거리를 걸으며 가볍게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서 그런지 거리는 물론 골목에도 나와 있는 사람은 몇 없었다. 난 별생각 없이 상쾌한 기분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친구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여태껏 걸어오던 길을 도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왜 그래, 떨어뜨린 물건이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몸을 돌려 뛰어간 곳에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있던 한 할머니가 계셨다. 리어카에는 내가 끌어도 무거울 법한 짐이 한가득 실려있었다. 게다가 할머니의 허리는 굽어있어 움직임도 무척 불편해 보이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께 말을 건넸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괜찮다며 몇 번이고 거절하셨다. 나는 멋쩍게 서 있다가 친구에게 그냥 가자는 손짓을 했다. 밤도 늦어 쌀쌀했고, 할머니가 사양하시는데 굳이 도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일정을 마치고 나온 상태라 피곤했기에 그냥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친구는 끝까지 도와드리겠다고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다. 결국 나도 얼떨결에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되었다. 할머니는 안 이래도 되는데 고맙다며, 연거푸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리어카는 할머니 혼자 끄시기에는 꽤 무거웠다. 할머니는 길 중간마다 몇 번이고 이 정도만 도와줘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친구가 계속 도와드리겠다고 해 결국 댁까지 모셔다 드렸다. 할머니는 댁에 도착할 때까지 가는 내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물론 내 친구가 나선 것은 칭찬받을만한 일이지만, 이 정도로 큰일을 한 건 아닌데... 나는 어딘가 부끄러워진 기분이었다.

“아까 갑자기 뒤로 뛰어가서 놀랐어. 난 할머니가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거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이게 힘든 일도 아니고...”

그 말을 듣자 나는 마음 한구석이 찢리는 것 같았다. 물론,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도와드리더라도 길 중간까지만 모셔다 드릴 수도 있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내가 부끄러웠던 건 무엇보다도 내 마음가짐이었다. 예의 실현은 인, 즉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배운 것은 나인데, 정작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적당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만큼만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人而不仁이면 如禮何인가?” (인이불인 여례하) - “사람이 ‘인’하지 않는다면 예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자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 다시 보니 결론적으로 ‘예’의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무엇이든 사람이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따지고, 정의를 따지는 광경을 많이 본 적이 있다. ‘인’과 ‘예’가 뒤바뀌어,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전에 겉으로의 예의를 따지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예의를 참 중요시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사회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지를 따져 본다. 난 그런 사람들을 그리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결국 보니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하고 있었다.

<논어>를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날카로운 질문이 많다. 마치 요즘 현대인들의 자세를 겨냥하는 것 같다.

‘회사후소’라는 말이 있다. 예쁜 보조개와 까만 눈동자는 미소와 아름다운 눈이 먼저 마련되어야 빛을 발한다. 즉, 아름다운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먼저 마련되고 그 위에 외형의 꾸밈을 더해야 참된 멋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아니라는 말이다. 예의 본질은 단순 외적 꾸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려한 외형을 감추려는 마음에서 진정성을 볼 수 있다. 요즘은 그야말로 ‘자기 광고’의 시대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 부풀리고 확대해 그야말로 ‘광고’를 한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 베푼 선의처럼 보여도, 결론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 한 행동이 태반일 때가 많다.

진정한 군자는 자신을 과장되게 드러내지 않으므로 얼핏 보면 능력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선의를 베풀어도 알리지 않으며, 자신의 모습을 뽐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보조개와 검은 눈동자처럼 빛을 발하게 된다. 내면에 쌓인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나며 허례의식으로 자신을 뽐내던 사람보다 훨씬 강한 힘을 보이는 것이다.

공자는 예의 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초상은 형식적으로 잘 치러지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결국, ‘예’의 근본은 사치와 과장이 아닌, 검소와 슬픔인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검소한 것은 좋고 하기 힘들지만, ‘자기 어필’의 시대에서 검소가 예의 본질 측면에서 적합하다.

상례와 같은 경우처럼 ‘예절’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식부터 장례식까지, 얼마나 성대하고 세련되게 치르느냐가 현대에서 중요시되는 상황들이 있다. 특히 결혼식과 같은 경우, 가족이 뭉어지는 자리인 만큼 첫 시작이 얼마나 화려하느냐가 주목거리가 된다. 그러나 공자는 이것보다 진정 어린 마음을 더 중요시한다. 가족이 뭉어지는 자리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지, 슬픈 이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정으로 애도해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이다.

최근 취업 환경이든, 입시 환경이든, ‘자기PR’이라는 말은 익숙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라는 의미로 쓰이는 ‘자기 PR’은 특히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조건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직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를 행하긴 어려울 것이다.

보이기 위한 ‘예’를 행하는 시대, 행동을 하기 전에 남의 시선부터 신경을 쓰는 시대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치레의 예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를 행하고 싶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찌면 뻘하고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자의 말을 따라 ‘나의 모습’이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시해 살아보고 싶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 9시~11시
학부(경영학과, 경영학전공) 학번: 2020315561	성 명	한글: 조을담 한자: 趙乙澹
담당교수: 유은주		
검인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오늘날의 예를 찾기 - 교환과 연결로서의 예

우리는 예를 실천해야 되는가? 예가 나를 도와주는 가?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 이다.

예가 나를 도와주는지에 대한 질문은, 철저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로서 쉬이 던져볼 만한 질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예는 남이 나에게 지켜줬으면 좋겠으며,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지켜줬으면 하는 “교환”이다. 예는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해왔다. 예, 인간, 그리고 예와 인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듯, 시간이 지나며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급변한 사회에서 우리의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에 있다.

우리 몸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전히 2000 년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고통을 견디며 출산을 하며, 오늘날의 과도한 영양을 흡수하길 버거워한다. 우리의 몸 또한 적응의 과정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가짐을 관장하는 예에 대한 가르침이 쉬울 리 없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나는 모두에게, 언제라도 예는 ‘나’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예는 천리의 절문이다.” 예는 천리의 절문이라는 것은, 자연의 뜻이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방법이 ‘예’라는 뜻이다. 당시 송나라의 예가 점차 사라지며 문제의식을 갖게 된 주자는 『의례경전통해』를 정립하여 예의 근본을 다잡고자 했다. 주자는 ‘예’의 형식에 대해 집중하고자 했다. 예의 형식이 중요한가? 예를 실천하는 가장 근본 된 마음이 중요한가? 나는 마음이 첫번째이며, 형식은 그 이후에 돌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가에서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무불경(無不敬)이라고 했다. 우리가 공경을 시작하는 생각의 씨앗이 모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씨앗이 싹을 트고 줄기를 자라면서, 공경을 향하는 줄기는 한 자리로 모이게 되어있다. 공경은 현대 사회가 향해가는 경쟁적 방향과 사뭇 다르다. 한정적인 자원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가 예를 행하면 그 예는 돌아온다. 상호 교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행하는 것은 곧 타인의 성장이고, 그것은 곧바로 나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마련이다. 내가 줄기를 자라게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다른 줄기에게 동력이 되어, 다 같이 만개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오늘 그 씨앗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거론한 이후, 내가 줄기를 키워 나가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나의 씨앗 1: 남과의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은, 자신의 두려움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느끼며 성장하는 나로서,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가담해야 할지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친구가 아닌 노트북과 핸드폰이 되어 버렸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우선순위가 짧은 사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공허를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남들과 관계 맺기 원하는 존재이다. 타자가 없다면 나도 없고, 내가 없다면 타자도 없다. 안타깝게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냐 물어본다면, 바로 다른 이들과 연결(Connect)하는 것을 꼽는다. 무엇이 우리를 더 관계 맺길 어렵게 만드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여기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온전한 나로서 다른 사람과 마주하기 힘들다. 내가 공허한 채로 남을 만난다면 더 공허해지기 마련이다.

현대 사회가 그 어느때보다도 외롭고 공허한 이유로 일상생활을 침범한 핸드폰이 가장 크게 꼽힌다. 과연 핸드폰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 것일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핸드폰은 이론적으로 우리를 더 연결되게 해준다. 초연결이 공허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핸드폰에 뺏긴 시간이다. 우리는 쉬지 않는다. 핸드폰을 통해, 끊임없이 주어지는 먹이, 즉 뇌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쉼 없이 주어진다. 걸음도, 여행도,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쉬지 못한다. 뺏기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우리는 뇌에 다른 자극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뇌가 쉴 수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구체화한다. 나의 두려움: 나의 후회, 나의 걱정, 나의 고뇌가 있다면, 뇌에 쉼이 주어져야 그에 대해 생각 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진실된 나를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정직함이 필요하다.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나에게 달갑지 않았던 일들, 그로 인해 닫힌 마음, 관련된 생각을 더 이상 탐색하지 않으려는 수동성, 이는 나를 주체화 하는 데에 거쳐가야 할 방해물이다. 그 과정 자체로 인간에게 버거울 수 있는 일을, 변화한 사회 환경이 더 어려운 곳으로 숨겨 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진실된 자신을 알고 싶어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2019년 결정적인 사고를 이후로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7개월간 주어졌다. 모든 일과 학업을 멈추고, 내 손에 주어지는 일이 전혀 없이 오로지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7개월이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쉬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없는 이 7개월이 나에게 엄청난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했다. 항상 무엇인가 끊임없이 달성해오던 삶이 한 순간 무기력 해져 몇 주간 울지 않고 잠드는 일이 없었다. 나의 몸에 나의 사고가 갇힌 느낌에서 스스로를 해방하고 싶었다.

나는 이제껏 나에게 일어난 일을 짚어보며, 내가 어떻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을 지 고민했다. 고통스럽기만 한 시간을 쏟아 생각에만 전념했다. 생각에 몰두하자 그제서야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하나 둘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사람을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혼자만의 시간을 얼마나 즐기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나를 주체화하고 나서, 바꾸고 싶은 나의 부분을 생각해보고, 이어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졌던 삶이 매우 고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나에 대한 컨트롤이 생기고,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은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다음 해인 2020년, 나는 불행하게만 느껴졌던 사고의 첫 달, 그리고 6개월 간의 사색을 지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로 인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내가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배우자, 나는 더욱 나에 대한 사색을 깊이 해보게 된다.

나는 이 포물선이 나를 고립시켜야만 할 끔찍한 사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험, 책, 사람과의 조우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작이 어떤 것이 되었건,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에 의식을 집중해보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온 나의 친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놀라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사랑을 해본적이 있나요?”, “당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사랑을 한다면, 저번보다 잘 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색한 웃음과 “잘 모르겠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혹은, “아직 어려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등의 답을 주었다. 완성된 답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에 대한 대답을 주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나도 그를 처음 만나 이 질문을 받고 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 자리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집에 가서 미처 답을 못했던, 머리에 맴도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었다. 나 자신도 나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없었다면, 내가 생각해볼 동기가 있었을까? 이처럼, 사람과의 조우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나는 그를 알게 된 이후, 남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질문에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알게 되었다. 이 소중한 우연이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의 씨앗 2: 외로울 줄 알아라

‘악이란 같아짐을 위한 것이요, 예란 달라짐을 위한 것이다. 같아지면 친해지고, 달라지면 공정하게 된다(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이는 『예기』 「악기(樂記)」의 가르침으로, 예가 ‘다름’의 가치에서 비롯됨을 말하고 있다. 친구들과의 두터운 우정으로 락(樂)을 즐기는 것도 좋다. 그러나 동화되는 시간이 전부라면 예에 내어줄 자리가 없다. 혼자의 시간에 의존할 줄 알아야 한다. 남과의 시간에 의존하며, 홀로 있는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되어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자라나는 버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평생 같은 자리에서 짝을 트고 인간을 위한 곡식이 되기까지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반면에 인간은 어떠한가? 좋은 확률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더 이상 자리하지 않을 것을 안다. 해가 바뀌는 것을 차치하고, 하루의 시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하고 의식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홀로 방황하며, 그 방황이 자연스럽고 의식적인 인생의 한 부분으로 가꾸어져야 한다. 함께만 자라오던 버들이 한순간 모두 사라지고 한개의 줄기만 남더라도,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실천으로, 집에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거니는, 학교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조금 먼 거리에 뒀다. ‘내’가 같이 걷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 속에 이야기를 하며 순간을 지나치는 것과, 여러 발자국을 물려나서 그들의 순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새로운 센세이션을 가져다준다. 무리를 이룬 ‘타자와 타자 간의 교환’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해준다.

내가 대화에 참여할 때는 미처 집중하지 못했던 그들의 표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정을 목격할 수 있다. 남과 섞여 들지 않는 시간에서 나의 시선을 점검할 수 있었다. 나를 정비할 수 있는 혼자의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 시간이, 타자와 만나는 시간에 더 진실하고 열정적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자는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가르쳤다. 예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서삼경 중 대학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즉, 나를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닦아 차례로 나의 주변, 그리고 나라와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이 있다. 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동일하다. 내가 온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이다. 조화로운 관계에서, 관계 자체를 컨트롤 할 수 없다면, 단지 내가 손에 쥔 권한인 나를 다스릴 권한을 알아차려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의 몰입과 스스로 충만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주변과 나라, 그리고 천하로 나설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를 주체화 했다면, 불연결(不連結)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 환경에서 어떻게 남과 조화로운 관계를 완성할 수 있을까?

나의 줄기: 손을 내밀어라.

나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 나로부터 공경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남을 공경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진심이 옳다면, 예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들 또한 옳은 진심을 알아차려주는 것이다.

앞서 나는 우리가 핸드폰이 시간을 앗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발생함을 느낀 후, 만약 핸드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이를 주체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오래도록 탐색하였다.

그리고 최근 나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다. 주에 한번,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를 찾고 안정감을 주는 꽃과 나무, 자연의 사진을 찍으러 사이클링을 간다. 그런 후, 친구들에게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를 보내준다. 다만, 다자에게 ‘노출’되는 공간에 ‘게시’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형태인 메시지로 전송한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만들었다는 것이 보이는 일대일의 대화가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노래와 함께 나를 안정시켜주는 하늘과 나무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들에게 동경하는 점을 생각해보고 그런 그들의 점을 동경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첫 반응은 물론 어색해하거나 어색함을 무마하려 농담을 하는 등,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그들도 내가 그들을 항상 염두하기 때문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점차 어색함이 사라지면, 이런 작지만 큰 소통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

더불어, 누군가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면, 내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할지언정, 그들의 마음에 서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좋다. 우리는 우리에게 건네진 한 문장으로 울 수 있고 1초간의 눈짓으로도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다. 내가 단단함을 알 때, 연결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작, 선제, 술선, 주도 등의 행동이 익숙한 이들이라면 더욱이 그렇다. 내 자신이 강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조금 뒤에서 길을 밟아오는 이들에게 바통을 내밀어 주는 것이 예이고, 인이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을 수도, 열려 있을

수도 있다. 이는 나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나는 나의 마음이 나에게만큼은 열려 있는 것을 아므로, '아무래도 좋은' 생각으로, 타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방향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쩌면 그것은 무한히 긴 직선상의 아스라한 한 점뿐일 수 있다.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아득한 점이 된다는 것을 느껴봤다면, 그 기분을 상기시켜 당장의 좌절도 나를 굴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의지이고, 나의 생명력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만약 타인이 직선상의 점에 걸쳐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리마인더를 줄 이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조화로운 관계를 완성해 주리라 믿는다.

예를 알기까지의 과정이 단지 쉬울 수는 없다. 인간은 모두 인(仁)을 타고나지만, 모두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하다. 주자년보에 의하면, 주자가 『의례경전통해』를 완성하기까지 19년 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막연하기만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그만큼 진실된 노력이 필요하고, 반복된 연습이 절실하다. 주자는 예가 인생의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먼젓번의 덕목으로 보았다.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듯, 지금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어떻게 예를 연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면, 조화로운 관계는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그 목표의 시작으로 나의 예를 닦는 것을 실천했고, 결국 그것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을 닦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목표를 갖기까지의 근간은 또다른 이의 노력이고 결실이었다. 예의 실천에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는 없다. 결국은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모여 사는 것은, 이 같은 예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함이다. 예를 실천하려면 나를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우리가 서로 교환할 것이 우리의 가치를 담은 인과 예가 아니라면, 무엇이 더 있겠는가?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15시~ 16시 50분
--------------	------------	--------------------------------

신소재공학부	학번: 2020312376	성 명	한글: 홍종원 한자: 洪鐘元
담당교수: 윤 민 향	검인		

주제: 예(禮) -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 조화로운 관계 완성의 비결 예(禮)

제목: ‘예’에서 찾은 인사의 의미

내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었다. 그 문화가 무엇이나 함은, 지나가다 선배와 마주치면 그 선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고등학교의 달라진 환경과 학업에 적응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가뜩이나 힘든데, 지나가는 선배까지 신경 써야 해?’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문화라는 이름이었지만 결국 강제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인사를 잘 받아주는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선배들도 있었기에, 당시에 나는 이 ‘인사 문화’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내 인사를 받는 선배들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았고, 인사를 하는 나 또한 아무 뜻 없이 형식적인 인사를 할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인가 나는 선배에게 인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이, 연합동아리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접점이 생긴 선배에게 인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생긴 당위성은 내가 학교의 ‘인사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선배의 입장이 되고 후배들에게 인사를 받아보면서, 난 비로소 ‘인사 문화’가 왜 전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코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인사를 받으면 단지 기분이 좋아졌고, 그 ‘좋아지는 기분’이 단순히 문화로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닐까, 라고 느껴졌다. 시대를 거스르는 행복이라, 정말 좋은 말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경험을 되돌아쳐 보니, 그것은 내가 인사를 했을 때의 시절이 미화된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당시에 가졌던 당위성은, 결국 나의 기분이 아닌 나의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렇기에 그 당시 인사를 했던 나에게 이 ‘인사 문화’가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했다. ‘인사 문화’를 넘어서, 당시에 내가 인사를 더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 이 구절을 보며 나는 이것을 ‘예’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예도 례(禮)’ 자의 기원에 대해 먼저 알게 되었다. ‘禮’ 자는 ‘示(보일 시)’ 자와 ‘豊(풍년 풍)’ 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글자임을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예도’가 되냐 하면, 풍년든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예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이를 통해, ‘禮’ 자가 주장하는 ‘예’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내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사는 결국 재물을 바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기원이고, 이 기원은 결국 조상, 또는 그에 필적하는 존재에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함으로써 뜻이 무조건 이루어지는가? 과학적으로 봐도 아닐 것이고, 그것을 그들 또한 대부분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단지 그 행위를 믿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도 례(禮)’ 자가 시사하는 것은 ‘그 믿음이 결국 ‘예’를 실천하려고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해 사고하면서, 나는 모든 종교의 근본적 이념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 성경, 불경 그리고 쿠란과 같이, 모든 종교의 경전에서는 그들의 신에 대한 믿음이 항상 강조되고 있으며, 그것을 옳게 믿는 자에게 행복, 또는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 ‘당위성’이 있었다. 신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신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한 ‘예’의 실천과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느 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다른 의미 없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교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무분별한 포교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 과연 그 사람이 ‘예’를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느낀 것은, 오늘날의 ‘예’는 ‘예도례(禮)’자가 내포하고 있는 예의 의미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예’의 실천에서 나의 기분만큼 중요한 게 상대방의 기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게 정확히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기분과 상대방의 기분. ‘예’를 실천하는 데 있어 어느 게 더 중점이 되어야 할까.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올바른 ‘예’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야 할까? 나는 아직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본래, 수원시 대왕교동에 위치하던 화성시의 ‘대왕교(大皇橋)’라는 다리에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있다. 조선 시대 당시, 다리의 이름에 ‘큰 대(大)’자와 ‘임금 황(皇)’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청의 황제가 반발하며 사신을 보내라 했다. 그렇게 사신이 청나라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미리 준비해간 상복을 입고, 상을 당한 청나라 황제의 어머니를 곧바로 조문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청의 황제는 그렇게 ‘예’를 보여준 사신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다리의 이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짧은 일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 사신에게 조문은 특별한 뜻 없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예’는 당연하게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맹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맹자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에 따라,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선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사덕(四德)’과 ‘사단(四端)’을 성선설의 단서로 들며, 이들 또한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역설했다. 그 가운데, 맹자는 ‘예’의 단서로 ‘사양지심(辭讓之心)’을 제시했다.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주장을 나는 특별히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정해진 정답은 없기도 하고, 모든 사람 내에 선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낙관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문으로 자신의 ‘예’를 표현한 사신처럼,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했다. 논어 위령공(衛靈公) 중, “함께 말을 나눌 만한데도 함께 말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라는 구절이 있다. 표현하는 수단이 말이 되었든 다른 것이 되었든, 적어도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문화’를, 나는 마음 표현의 연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면, 당시 나의 마음은 한결 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논어의 팔일(八佾)에서, “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라는 임방의 물음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한다.” 공자가 이 구절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예’를 표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결국 그 ‘예’를 나타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예’를 표출하되, 그 표출하는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며, 내면과 적절한 균형을 바탕으로 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는 결국 나의 기분과 상대방의 기분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되, 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에겐 이것이 결코 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예를 갖추는 마음을 가지기도 어려운데, 결국 남인 상대방의 마음을 알맞게 헤아리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나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조화로운 관계’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조화로운 관계’의 형성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먼저, 스스로에 대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MBTI 성격유형 검사가 요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히 16가지의 유형 중 한 가지의 유형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정확도가 높았다는 점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MBTI 성격유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만큼 자신의 특징을 표현한 서술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게 어렵기에, 더더욱 스스로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관계 형성의 기본은 결국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고,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서 알 수 있었던듯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게 비로소 ‘예’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외향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이라고 해야 할까, 사람은 결국 성향과 성격이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을 선호하게 된다. 그렇기에 나에겐, 자신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 공자가 시사하는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 빚대어 그들을 보되, 인지한 다름을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그 균형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예’를 바탕으로 표현하면서 이를 또 해결해나가고, 이것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자,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인사성이 참 바르네.” 내가 인턴 생활을 하며 처음 들었던 칭찬이었다. 고등학교 때처럼 맹목적이진 않더라도, 나는 지금도 인사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단지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다는 걸 이해해서 그랬던 것이었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 인사에 대한 동기부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사 문화’가 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인사를 바탕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예’의 균형을 스스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사하지 못했던 것. 처음에는 이것들이 나의 이기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공자의 사상에서 ‘균형’을 배우면서 나는 이것이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예’의 실천 과정이었다고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인사를 ‘예’의 실천의 밑바탕으로 삼아보고 싶었다. ‘부지례 무이립(不知禮 無以立)’에 따라, ‘예’를 이해했으며 남 앞에 나설 준비가 다 되었음을 보여야 하기에, 나의 작은 인사가 ‘예’의 실천이라는 큰 목표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는 토적성산(土積成山)의 마음가짐으로 인사를 하려고 한다.